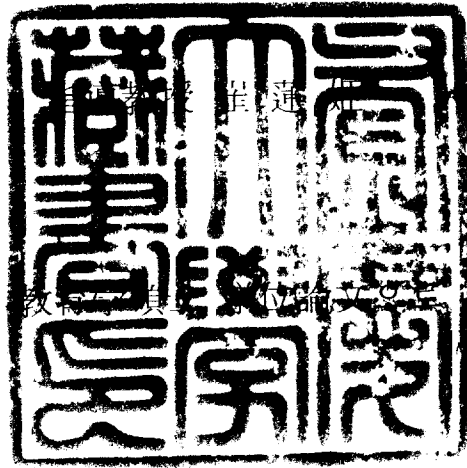


教育学碩士: 學位論文

宮沢賢治의 『風の又三郎』論

-複合的 對立構圖를 中心으로-



이 論文을 教育学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8月

釜慶大学校 教育大学院

日語教育專攻

朴 順 德

朴順徳의 教育学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05年 6月

主審 金 祥 圭 (印)

委員 崔 蓮 姬 (印)

委員 申 宗 大 (印)

目 次

* Abstract	ii
I. 序論	1
II. 本論	4
1. 宮沢賢治 童話作品의 〈風〉	4
2. 「又三郎」의 悲哀	9
3. 「雨はざっこざっこ雨三郎、風はどっこどっこ風三郎」의 正体	15
4. 「又三郎」의 永遠性	24
5. 「又三郎」와 作中人物間の 構図	29
5-1. 傍觀的 리더 「一郎」	30
5-2. 最初の 発見者 「嘉助」	31
5-3. 反自然的 存在 「佐太郎」	33
5-4. 対立的 存在 「耕助」	34
5-5. 無批判的 追従者 「ペ吉」	35
5-6. 唯一한 支持者 「先生」	38
6. 複合的 対立構図	41
III. 結論	45
* 参考文献	49
* 附録(『風の又三郎』原文翻譯)	51

A Study on Miyazawa kenji's 『Matasaburo of wind』

-Focused on complex antagonistic composition-

Park, Soon Duc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Matasaburo of wind』 is one of Miyazawa kenji's fairy tales. It became generally known from early time and it made into film or drama frequently from prior to the war until the present, therefore 『Matasaburo of wind』 became well known. Beside a early 『Matasaburo of wind』 - there are two works, a early 『Matasaburo of wind』 and a final 『Matasaburo of wind』 , 『Matasaburo of wind』 is the last work.

The final 『Matasaburo of wind』 was evaluated that reality and emotion of 'young age' was well represented as a idealization about a downfallen atmosphere, in a highly developed capitalistic society.

Generally, studies on 『Matasaburo of wind』 takes 3methods. First is analyzed into the difference and commonness between the early work and the final work. Second, even a individual study about the work, it was interpreted antagonism between children who love and protect nature and adults who destroy nature in the final work. Otherwise it was understood that hidden meaning which is including militarism and diffusive ideology of enlightenment,

but it is that can't clearly explain a reason for being 「Saburo」. I think that it remains on a simple method which search for a series case, a movement of character, and a main subject related to at that time.

Therefore, on this study, base on textual analysis, I will start to look for an attitude of children about nature, irony of a changing behaviour against the attitude, and the meaning of 「Saburo」 in the final work, and then I will be investigate oneness between human and nature, limitation about its lack of harmony, another presence of possibility which appear at closing of the work.

Consequently, I can discover a complex antagonistic composition in 『Matasaburo of wind』. The first meaning, The composition has antagonistic relation with the naturalistic Matasaburo and children and The anti-naturalistic adults primarily. Second Meaning is the composition of children and wind's nymph, Matasaburo. The children become assimilate to the adult gradually and Matasaburo tries to protect nature. Third meaning can be understood a internally confrontation of Matasaburo, which missing one's natural shape because of children's traitorous behaviour.

However, in 『Matasaburo of wind』, it just did not come to the tragic conclusion- 'the naturalistic Matasaburo is treated distantly by human' -and furthermore it adds an affirmative hope that human and nature can keep harmony. It seems that the evidence is a last ending of the text, 「12th of September」.

『Matasaburo of wind』 intends to a natural life. It is that ideal of the author. Accordingly, It could be a tragic novel because the author's dream which is contradictory to the real life. The tangible world is full of sorrow and nihilism.

But that is a hopeful juvenile story also. That is why it gives a hint a positive possibility about the hope of nature and human.

I. 序論

『風の又三郎』¹⁾는 宮沢賢治동화의 대표작 중 하나로써, 일반적으로 村童物語의 集大成²⁾으로 보고 있다. 「種山ヶ原」와 「十月の末」 그리고 「谷」「さいかち淵」「みちかい木ペン」 등의 전작들에서 이미 구상을 마친 宮沢賢治의 村童스케치가 『風の又三郎』에 集成되어 있다³⁾고 할 수 있으며, 「種山ヶ原」와 「さいかち淵」가 자연의 경외감에 직면한 소년의 두려움만을 그리고 있는 단순 구도였다면, 이 작품은 「風の又三郎」라고 하는 존재와 그에 대한 작가의 의식 개입에 의해 미지의 異空間의 세계를 상징시키고 있다⁴⁾고 하겠다.

宮沢賢治의 동화작품으로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세상에 알려져, 戦前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영화화, 혹은 드라마화된 대중적인 작품으로, 전학생 高田三郎를 중심으로 東北지방의 소박한 소년들의 모습이 보다 사실적으로 스케치되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⁵⁾을 받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골마을을 배경으로 어린 소년들이 보여주는 낯설지 않은 유년시절의 광경은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사회의 메마르고 피폐한 풍토 아래 무미건조한 일상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독자들로 하여금 유년시절의 어떠한

1) 生前 미발표. 초기형 「風野又三郎」의 전면적인 改作과 더불어 「種山ヶ原」「さいかち淵」등 이전의 작품이 재구성되어 昭和 6~8년경 성립된 것으로 추정.

2) 続橋達雄, 「風の又三郎」 『別冊国文学』 第6号, 学灯社, 1980.5, p.99

3) 境 忠一, 『評伝宮沢賢治』, 桜楓社, 1968.

4) 天沢退二郎, 『宮沢賢治全集7 〈風の又三郎解説〉』, ちくま文庫, 1985, p.620

5) 古賀良子, 「賢治の少年小説について」 『四次元』, 宮沢賢治研究会, 1967.3.

리얼리티와 그리움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게 한다고 말 할 수 있으며, 본 작품에서 보여 지는 아이들의 동심어린 모습이 그와는 대조적인 색채를 띠는 현시대의 암울하고 염세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理想化되어 나타나고 있다⁶⁾고 보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작품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있어서 西田良子氏는 초기형이라 불리는 「風野叉三郎」⁷⁾와 최종형으로 불리는 『風の叉三郎』의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전작에서 후작으로의 전환에 의해, 시골아이들의 일상생활이 보다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風の叉三郎』에서는 아이들의 심리묘사가 날카로워짐과 동시에, 「風野叉三郎」와 달리 교훈성과 설명적 어조 없이 사실적인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⁸⁾고 하였다.

한편 中村三春氏는 「風野叉三郎」가 가지는 科学民話的 성격과 『風の叉三郎』의 주인공 三郎가 갖는 전학생으로써의 변화된 모습을 지적하면서 두 작품간의 이질성을 논하고 있다.⁹⁾ 이들 모두 「風野叉三郎」와 『風の叉三郎』의 두 작품을 두고 리얼리티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취하는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작품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개 이처럼 초기형과 최종형의 두 작품을 놓고서 내용전개상, 그리고 주인공 「叉三郎」와 「三郎」의 양상 등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상이점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는 패턴을 취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개개의 작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보여 진다.

6) 島村 輝, 「風の叉三郎」『国文学 解釈と鑑賞』第66卷8号, 至文堂, 2001.8.

7) 生前 미발표. 大正13년 以前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

8) 西田良子, 「『風の叉三郎』—日本児童文学史の視点から」 『国文学 解釈と鑑賞』第58卷9号, 至文堂, 1993.9.

9) 中村 三春, 「風[の]叉三郎」『国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第48卷3号, 学灯社, 2003.2, p.44

뿐만 아니라 각각의 작품을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일련의 연구에서조차, 『風の又三郎』의 경우, 자연을 사랑하고 수호하려는 아이들과, 그에 반하는「専売局」를 비롯한 어른들과의 二分法的인 대립관계를 위주로 논리를 해석¹⁰⁾해 가거나, 군국주의 및 계몽의식 확산이 잠재된 작품¹¹⁾으로써 생각하는 등, 주인공 三郎의 존재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한 채, 일련의 사건들과 작품의 주제까지도 당시의 시대상과 관련하여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적 중심의 분석에 근거하여, 『風の又三郎』에 있어서 자연에 대한 아이들의 태도, 그리고 그 태도에 배반하는 행동변화상의 아이러니를 살펴봄으로써, 작품이 추구하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가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장을 위한 계몽적 역할로서 작품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와는 달리, 바람의 精靈으로서의 三郎의 이미지와 광물 물리브덴의 의미 등에 착안하여 三郎의 인물상과 역할이 작품 속에서 가지는 구체적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동화 『風の又三郎』에서 나타나는 一次元的 성격의 인간, 자연의 不調和 및 대치양상 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복합적인 대립구도와 작품말기에 드러나는 또 다른 가능성의 여부에 대해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

10) 宮城一男, 『宮沢賢治と自然』, 玉川大学出版部, 1983, pp.8-30

11) 前掲註 6) pp.134-135에서 再引用

II. 本論

1. 宮沢賢治 童話作品의 〈風〉

及川 均氏는 宮沢賢治의 동화 속에서 바람은 긍정적인 플러스 이미지의 에너지이면서, 동시에 파괴적인 마이너스 이미지의 에너지로써, 이는 宮沢賢治동화의 특징 중 하나라 말하며, 결국 바람은 구름과 함께 우주의 근원적인 생명력으로써 여겨지는 것¹²⁾이라고 하였다.

동화 『風の又三郎』에서 나타나는 바람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함께 존재하고 있는 자연의 생명력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바람이라고 하는 플러스적이면서도 마이너스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연의 생명력의 상징이 바로 三郎의 존재인 것이다.

『風の又三郎』를 비롯하여 「原休劍舞速」 「種山ヶ原」 등의 작품들은 자애롭지만 때로는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는 자연을 무대에 전개시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한다¹³⁾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한 작품들 속에 賢治가 주된 제재로써 바람을 등장시킨 이유는, 바람이라는 것이 여타의 제재보다도 자애롭고도 파괴적인 자연의 이면성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표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12) 草野心平 編, 『宮沢賢治研究Ⅱ』, 筑摩書房, 1981, pp.177-184

13) 小沢俊郎, 「種山ヶ原」 『別冊国文学』 第6号, 学灯社, 1980.5.

宮沢賢治의 자연을 제재로 한 동화작품 속에는 여러 가지 광물을 비롯하여 구름과 바람과 비, 그리고 태양과 별과 달 등의 자연물과, 그 이외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 등 자연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패턴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風〉는 동물을 제외하고 宮沢賢治의 동화작품 속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된 제재라 할 수 있다.

논자가 賢治의 동화작품에서 나타나는 〈風〉와 관련된 묘사를 살펴 본 바, 바람의 성격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었다.

첫째, 바람은 신선한 생명력을 불어 넣는 효과를 부여한다. 둘째, 바람은 파괴적인 에너지를 상징한다. 그리고 셋째 바람은 불길한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적 장치로서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바람은 고난과 역경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았을 때,

わたしたちは、氷砂糖をほしくらゐるもたないでも、きれいにすきとほつた風をたべ、
桃いろのうつくしい朝の日光をのむことができます。14)

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注文の多い料理店』序文, 그리고 「四叉の百合」「ポーノの広場」「どんぐりと山猫」「鹿踊りのはじまり」「おきなぐさ」「いてふの実」등 동식물을 제재로 한 여타의 많은 동화작품 속에서 「すきとほつた風」라는 공통적인 표현으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바람은 청명하고 투명한 바람의 일반적인 이미지를 통해 작품에 신선한 생명력을 불어 넣는 바람의 첫 번째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다.

「四叉の百合」

14) 宮沢賢治, 『宮沢賢治全集 第12巻 童話〔V〕』, 筑摩書房, 1995, p.7
本文의 傍線은 論者에 의한 것임. 以下 同一.

「しょうへんちはあしたの朝の七時ごろホームキャの河をおわたりになってこの町にいらっしやるそうだ」こう言う語がすきとおった風といっしょにホームキャの城の家々にしみわたりました。15)

「ポラーノの広場」.

あのイーハトーヴォのすきとおった風、夏でも底に冷たさをもつ青いそら、うつくしい森で飾られたモリーオ市、郊外のぎらぎらひかる草の波。16)

「どんぐりと山猫」

すきとほった風がざあっと吹くと、栗の木はばらばらと実をおとしました。（中略）そこはうつくしい黄金いろの草地で、草は風にざわざわ鳴り、まはり立派なオリーブいろのかやの木のもりでかこまれてありました。17)

「鹿踊りのほじまり」

それから、そうそう、苔の野原の夕陽の中で、わたくしはこのはなしをすきとほった秋の風から聞いたのです。18)

「おきなぐさ」

奇麗なすきとおった風がやって参りました。まず向こうのポプラをひるがえし、青いの燕麦に波をたてそれから丘にのぼって来ました。19)

「いてふの実」

光の束が黄金の矢のやうに一度に飛んで来ました。子供らはまるで飛びあがる位

15) 宮沢賢治、『宮沢賢治全集 第10巻 童話〔Ⅲ〕』，筑摩書房，1995，p.98

16) 宮沢賢治、『宮沢賢治全集 第11巻 童話〔Ⅳ〕』，筑摩書房，1995，p.69

17) 宮沢賢治、『宮沢賢治全集 第12巻 童話〔Ⅴ〕』，筑摩書房，1995，p.9-11

18) 宮沢賢治、『宮沢賢治全集 第12巻 童話〔Ⅴ〕』，筑摩書房，1995，p.98

19) 宮沢賢治、『宮沢賢治全集 第9巻 童話〔Ⅱ〕』，筑摩書房，1995，p.180-183

輝やきました。北から氷のやうに冷たい透きとほった風がゴースと吹いて來ました。20)

이상의 작품들 속에서 보여 지는 바람은 동화 속의 풀잎과 나무, 그리고 햇살 등에 투명하고 신선한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이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風〉는 宮沢賢治의 다수의 동화작품 속에서 상쾌하고 맑은 「すきとほった」 바람으로서 묘사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와는 이질적인 성격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가령 「さいかち淵」 「原体剣舞速」 「種山ヶ原」 등의 동화작품 속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작고 미약한 존재 앞에서 무서운 에너지를 분출하는 거대한 자연의 모습으로 표출되었다.

「さいかち淵」

いきなり林の上のあたりで、雷が鳴り出した。と思ふと、まるで山つなみのやうな音がして、一ぺんに夕立がやって來た。風までひゅうひゅう吹きだした。21)

「種山ヶ原」

冷たい風が、草を渡りはじめ、もう雲や霧が、切れ切れになって眼の前をぐんぐん通り過ぎて行きました。(あゝ、こいつは悪くなって來た。みんな悪いことはこれから集ってやって來るのだ。) 22)

이것이 파괴적인 에너지로서 표출되는 바람의 두 번째 성격을 내포한 작품들이라고 한다면, 『注文の多い料理店』에서는 바람의 세 번째 성격, 즉

20) 宮沢賢治, 『宮沢賢治全集 第8巻 童話〔I〕』, 筑摩書房, 1995, p.70

21) 宮沢賢治, 『宮沢賢治全集 第10巻 童話〔III〕』, 筑摩書房, 1995, p.73

22) 宮沢賢治, 『宮沢賢治全集 第8巻 童話〔I〕』, 筑摩書房, 1995, p.101

앞으로 닥치게 될 사건을 예고하는 듯한 기묘하고도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는 복선적인 뉘앙스로 표현되었다.

『注文の多い料理店』

どころがどうも困ったことは、どっちへ行けば戻れるのか、いっこう見当がつかなくなっていました。風がどうと吹いてきて、草はざわざわ、木の葉はかさかさ、木はごんごんと鳴りました。²³⁾

이 바람은 음산하고 불길한 느낌을 作中人物들과 독자들에게 부여함으로써 끝이어 전개 될 위험스러운 상황과 부정적 존재의 출현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狼森と策森、盗森」에서는 바람이, 「森」가 자신의 영역에 들어와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 겨울 동안 굳건히 막아주어야 하는 얼음처럼 차갑고 부정적인 존재로 묘사되어지기도 하였는데, 이는 宮沢賢治의 詩作品인 「雨ニモマケズ」에서 〈風〉가 〈雨〉라는 매개와 함께 인간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역경의 상징으로 표현된 것과 동일한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狼森と策森、盗森」

その人たちのために、森は冬のあいだ、一生懸命、北からの風を防いでやりました。²⁴⁾

이와 같이 바람은 宮沢賢治의 동화작품에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 되었으며, 바람이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이면서도 파괴적일 수 있는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을 구성하는 하나의 장치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23) 宮沢賢治, 『宮沢賢治全集 第12巻 童話〔V〕』, 筑摩書房, 1995, p.29

24) 宮沢賢治, 『宮沢賢治全集 第12巻 童話〔V〕』, 筑摩書房, 1995, p.21

으로 보여 진다.

논자는 이것이 주제의 표출이나 賢治의 자연관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동시에, 바람의 이 같은 양면성, 다시 말해 대립되는 성격의 두 가지 에너지가 風の又三郎라고 불리우는 三郎에게도 내재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又三郎」의 悲哀

초기의 『風の又三郎』²⁵⁾에 관한 주된 연구의 핵심은 그동안 宮沢賢治의 동화문학에 있어서 보여 지지 않았던 리얼한 부분에 대한 발견²⁶⁾과, 전학생 三郎가 과연 진정으로 바람의 精霊 風の又三郎일 것인가 하는 원론적인 해명²⁷⁾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것이 차츰 三郎와 시골 아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영역으로 시야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인물들의 심리와 행동에 있어서의 다층적 구조와 주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꾸준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식민지주의적 세계관의 틀 속에서 宮沢賢治의 작품을 다루는 연구방법이 활발하게 전개²⁸⁾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 米村みゆき氏의 論이다. 米村みゆき氏는 광물 물리브덴의 산출이 제

25) 宮沢賢治, 『宮沢賢治全集 第11卷 童話〔IV〕「風の又三郎」』, 筑摩書房, 1995. 以下, 『風の又三郎』의 原文引用은 이 책에 의거하며, ()는 引用쪽수를 나타낸다.

26) 前掲註 11)

27) 前掲註 9) p.45

28) 前掲註 6) p.134

국주의·군국주의의 확대에 있어 임하는 역할과 러일전쟁²⁹⁾의 戰費調達과 담배專売制³⁰⁾와의 관련, 그리고 전학해 오기 전까지 三郎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北海道의 이미지와 「春日明神」이라고 하는 神社의 성격 등을 지적함으로써, 이 소설이 지니는 시대성과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장을 위한 계몽적 역할을 하는 三郎에 대해 주목³¹⁾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三郎에 대해 아이들은 일종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계몽을 문제화한 부분이라고 주장³²⁾하였다. 즉, 米村氏는 牧歌的인 농촌의 小學校 생활이라는 설정 속에서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역사적 이데올로기의 구도를 발견하고자 하고 있는 것³³⁾이다.

그러나 문제는 9月 1日부터 9月 12日에 이르는 텍스트의 내용 중에서 아이들과 三郎의 대화 및 행동, 그리고 인물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의미하고 있는 세세한 부분의 검토 없이 단지 대략적이고 추상적인 몇 가지의 이미지만을 두고 三郎의 존재를 선불리 시대적인 이데올로기와 관련지어 버리는 것에 따른 위험성에 있다.

논자는 그것이 과연 본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방법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바탕으로 그러한 시도가 간과하고 있는 몇 가지 부분을 텍스트 속에서 발견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또 본 작품 속

29) 1904年 2月 8日 일본함대가 旅順軍港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어, 1905年 9月 5日에 강화를 하게 된 러시아와 일본간의 전쟁이다. 한국과 만주의 분할을 둘러싸고 싸운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英日同盟과 러시아·프랑스 同盟이 있었고,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었다. 러시아는 패배의 결과로 혁명운동이 진행되었고, 일본은 전승으로 한국의 지배권을 확립하고, 만주 진출이 확정되었으나 미국과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30) 국가의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특정물건이나 상품을 국가에서 판매하여 국가의 수입을 늘리는 제도. 이것의 관할기관이 專売局이다.

31) 前掲註 11)

32) 前掲註 9) p.43

33) 前掲註 28)

에서 三郎과 시골마을의 아이들이 가지는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三郎의 존재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확장을 담당하는 역할로서 三郎을 보고 있는 米村氏의 논리로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텍스트 속에서 찾아보면, 三郎이 아이들과 함께 숲 속에 간 9月 6日の 일을 들 수 있다. 무심코 담배 잎을 때 내어 버려서 아이들로부터 非難받는 三郎의 모습³⁴⁾은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三郎을 보고 있는 米村氏의 논리로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농촌의 무지한 아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 「専売局」가 아끼는 담배 잎을 마음대로 손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금기와도 같은 것이며, 만약 三郎이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戦費調達에 기여하는 제국의 귀중한 자원을 함부로 훼손하는 아이들을 향해 三郎이 거세게 非難을 한다고 하는 易置된 설정이 더 적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장면은 마치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듯한 모습의 자연현상을 연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9月 6日の 이 같은 상황설정은 三郎이 등장할 때마다 어디선가 때맞춰 불어오는 바람에 대한 장면묘사와 마찬가지로 주인공 三郎이 바람의 精霊이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 중 하나일 것이라고 보여 진다.

그리고 9月 6日 같은 날, 「うわい又三郎、風などあ世界じゅうになくてもいいな、うわい。」³⁵⁾라고 한 耕助의 말에 대항하여 바람의 이점을 여는 때보다도 진지한 얼굴로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三郎의 모습 또한 이러한 추측을 더욱 가능케 해 주는 곳이 아닐까 한다.

또한 米村氏가 제국주의·군국주의의 확대의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었던

34) 附録 p.68 参照바람.

35) 『風の又三郎』 p.198

광물 몰리브덴은,

「モリブデン何にするべな。」

「それは鉄とまぜたり、薬をつくったりするのだそうです。」 (p.179 引用)

라는 선생님과 一郎간의 9월 1일의 대화부분에도 나와 있듯이, 철과 섞어 특수강을 만들거나, 약품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된다. 즉, 몰리브덴이라는 것이, 오로지 러일전쟁의 조달물품, 즉 폭력적 무기 생산의 원료로서만 이용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농민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이롭게 만들 수 있는 광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같은 몰리브덴이라고 하는 광물을 賢治가 굳이 설정한 이유는 필시 이것이 공동체를 영위해 가는 모든 인간들의 생활의 편리와 안위를 돌보는 기능을 가진 유익한 자연의 산물이자, 동식물에도 함유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共同의 상징적 산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일 것이다.

9월 2일 수업 첫 날 佐太郎에게 연필을 빼앗겨 울고 있는 かよ를 보고 佐太郎에게 자신의 연필을 대신 빌려준 三郎가, 몇 시간 뒤에 어디서 났는지 모를 석탄조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³⁶⁾은 이러한 몰리브덴의 산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이러한 도입부분의 희망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三郎와 그의 「父」는 결국 몰리브덴을 얻지 못한 채 떠난다고 하는 설정에서 작품은 종결되어지고 있다.

三郎가 「父」와 함께 인사도 남기지 않고 불현듯 어딘가로 떠나버리기 전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함께 보낸 9월 8일의 사건은 몰리브덴의 산출을 막은 결정적 동기인 동시에, 본 작품에서 아이들과 三郎가 가지는 관계를

36) 附錄 pp.59-61 参照바람.

가장 명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월 7일 강에서 発破를 하여 물고기를 잡는 어른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한 아이들은 그 이튿날 이 어른들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게 된다.

みんなはもう授業の済むのばかり待っていました。二時になって五時間目が終わると、もうみんな一日散に飛びだしました。佐太郎もまた策をそと袖でかくして、耕助のみんなに囲まれて河原へ行きました。(p.205 引用)

이와 같은 9월 8일의 모습은, 9월 7일 강가에서 만난「専売局」를 향해 입을 모아「あんまり川を濁すなよ、いつでも先生、言うでないか。」³⁷⁾라고 외치던 아이들의 모습과는 상반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9월 7일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어 온 아이들과 자연을 파괴하는 어른들 간의 대립구도가 9월 8일에는 자연의 精霊 又三郎와 강을 오염시키는 아이들 간의 대립구도로 변화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손에 의해 무참하게 훼손되고 파괴되어 지는 자연에의 동정과 연민보다는, 오로지 그곳으로부터 얻어 질 수 있는 폭력적 포획의 결과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몽매한 집단으로 대변되었다.

一郎がそれをのぞくと、思わず顔いろを変えました。それは魚の毒もみにつかう山椒の粉で、それを使うと発破と同じように巡査に押えられるのです。(p.205 引用)

佐太郎が大威張りで、上流の瀬に行つて策をじゃぶじゃぶ水で洗いました。みんなしいんとして、水を見つめて立っていました。又三郎は水を見ないで向こうの雲の峰

37) 『風の又三郎』 p.204

の上を通る黒い鳥を見ていました。一郎も河原にすわって行をこちこちたたいていま
た。(p.206 引用)

위의 내용은 一郎만이 유일하게 아이들의 무리에 동조되지 않고 그 모습
들을 외면하고 있는 장면으로, 三郎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一郎라는
존재의 특이성을 알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一郎역시 아이들 무리의 리
더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 행동을 말리거나 꾸짖지 않고 방
관자적 입장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에서 인간이 지닌 한계를 엿볼 수 있다.

한편 기대했던 물고기의 포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佐太郎은 아이들의 실
망과 자신에게 향하는 거센 非難의 목소리를 회피하고자 술래잡기를 제안
해 내고, 이에 아이들은 모두 술래잡기를 하기 위해 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술래잡기는 단순한 유희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대치된 상황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강물은 바로 직전에 佐太郎가 물고기의 포획을 위해 山椒가루가 든
자루를 담구었던 강물이다. 기대와는 달리 한 마리의 물고기도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그 강에서 충동적으로 시작된 유희는 아이들로 하여금 스
스로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고, 술래였던 又三郎에 의해 모두
잡히고 마는데, 결국 아이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山椒가루를 탄 강물 속
에서 포획되어진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아이들 자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인간과의 합일을 이루려 했던 바람의 精霊 又三郎. 그러나 아이들은 자
연의 又三郎과 調和를 이루기보다는, 우연한 기회에 얻게 된 포획물로 말
미암아 어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모방하는 것에 훨씬 더 적극적이었으므
로 결과적으로 이 합일의 염원은 又三郎, 혼자만의 외로운 노력으로 끝
이 나버렸다.

친구가 되려고 하였으나 친구가 되지 못하고, 아이들의 사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이질적인 존재로 낙인 되어버린 바람의 精霊 又三郎의悲哀. 이悲哀는 강을 오염시키는 어른에 대한 아이들의警告와 覺性에의 외침은 사라지고 어느새 아이들 스스로 그 어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 버린 배반적인 행동변화에 따라, 그들이 더 이상 어른이 아닌 자연과 대치하는 이질적 양상을 보이게 된 것으로부터 기인된다 할 것이다.

3. 「雨はざっこざっこ雨三郎、風はどっこどっこ風三郎」의 正体

誰ともなく「雨はざっこざっこ雨三郎、風はどっこどっこ風三郎」と叫んだものが
ありました。みんなもすぐ声をそろえて叫びました。「雨はざっこざっこ雨三郎、風
はどっこどっこ風三郎」又三郎はまるであわてて、何かに足をひっぱられるやうに
淵からとびあがって一日散にみんなのところへ走ってきてがたがたふるえながら「い
ま叫んだのはおまへらだちかい。」とききました。「そでない、そでない。」みんな
は一しよに叫びました。ベ吉がまた一人出てきて、「そでない。」と云いました。又
三郎は、気味悪さうに川のはうをみましたが色のあせた髭をいつものやうにきつと瞞ん
で「何だい。」と云いましたが、からだはやはりがくがくふるってゐました。

(p.208-209 引用)

『風の又三郎』의 클라이막스³⁸⁾라 불리는 9月 8日의 이 부분을 두고, 天沢退二郎氏は 「誰ともなく」의 두 행을 외친 것이 누구인가, 그 소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추론 해 내는 것이, 단락의 이해, 나아가 『風

38) 村島正浩, 「宮沢賢治論-風の又三郎からカンパネラへ/そしてみんながカンパネラへ」
『星座』第2号, 矢立出版, 1982.8, pp.36-37

の又三郎』 전체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賢治동화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³⁹⁾고 하였다.

『風の又三郎』에 있어서 전반부 자연에 대한 아이들의 일관적인 태도, 그리고 작품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그 태도에 배반하는 행동변화상의 아이러니와 더불어, 주인공 三郎의 인물상과 그 역할이 작품 속에서 가지는 구체적인 존재의미를 탐구해 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三郎가 9月 12日 아이들로부터 갑작스럽게 사라지기 직전의 마지막 모습이자, 아이들과 三郎의 심리구조가 이전의 모습과는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양상으로 드러나는 이 부분에 대한 고찰은 본 작품의 이해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雨はざっこざっこ雨三郎、風はどっこどっこ風三郎」를 세창한 正体에 대하여 기존의 諸說들을 검토·분석한 후, 그에 대한 논자의 異論을 바탕으로 「雨はざっこざっこ雨三郎、風はどっこどっこ風三郎」을 외친 主体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

9月 8日의 「雨はざっこざっこ雨三郎、風はどっこどっこ風三郎」의 부분을 두고 佐藤通雄氏は

「雨はざっこざっこ雨三郎、風はどっこどっこ風三郎」は又三郎をはやしたてる

子供達の歌なのだ。⁴⁰⁾

39) 天沢退二郎, 「『風の又三郎』再考1—『9月8日』の意味をめぐって—」 『言語文化』第2号, 言語文化研究所, 1984.2, p.278

40) 佐藤通雄, 『宮沢賢治の文学世界—短歌と童話—』, 泰流社, 1979, p.86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듯 「雨はざっこざっこ雨三郎、風はどっこどっこ風三郎」의 부분을 風の又三郎을 조롱하는 아이들의 대합창으로서 인식하는 佐藤氏の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天沢退二郎氏の 의견을 빌리고 싶다.

天沢退二郎氏에 따르면, 최초의 発声과 반복된 부분의 主体에 있어서의 이질성에 착안, 이 두 번 반복된 「雨はざっこざっこ雨三郎、風はどっこどっこ風三郎」의 노래를 일관된 主体로서의 아이들의 대합창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⁴¹⁾, 또한 아이들을 한 명씩 점검해 보아도 결코 「誰ともなく」에 부합 되는 인물을 찾을 수가 없다⁴²⁾고 하였는데 이것은 正論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天沢氏가 주장한 바와 같이 두 번 반복된 이 노래의 실질적 主体가 반드시 이질적인 둘로 나뉘어 진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誰ともなく」의 두 행을 외친 것이 누구인가, 그 소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諸說들을 모두 점검한 以後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二.

노래의 主体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山内 修氏の 論으로, 그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では、高田三郎は何によって拒否されたのか。いうまでもなく〈自然〉によってである。川遊びの場面の大合唱は、子供達の口から発せられたものであるが、彼らがそれを否定するように、これは彼らの口を借りた〈自然〉の声なのである。

41) 前掲註 39) p.282

42) 前掲註 39) p.290

高田三郎は〈自然〉によって否定された。⁴³⁾

즉, 山内氏 역시 佐藤氏와 마찬가지로 「雨はどっこどっこ雨三郎、風はどっこどっこ風三郎」의 노래를 아이들의 대합창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佐藤氏와 다른 것은 그것이 표면상으로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회지의 高田三郎을 거부하고자 하는 자연이 아이들의 입을 빌려 내는 자연의 소리라고 보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山内氏は 전학생 高田三郎가 전형적인 도회지의 소년으로 설정된 점에 착안하여, 강에서의 장면은, 도시의 高田三郎가 궁극적으로 시골의 아이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三郎의 외형적인 모습에만 치중한 것으로, 三郎의 존재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텍스트 안에서 보여 지는 바람의 精靈으로써의 이미지와 복선을 간과함으로써, 三郎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관점이라고 생각된다.

変なこどもはやはりきょろきょろこっちを見るだけ、きちんと腰掛けています。そのとき風がどうと吹いて来て教室のガラス戸はみんながたがた鳴り、学校のしろの山の萱や栗の木はみんな変に青じろくなってゆれ、教室のなかのこどもはなんだかにやとわらってすこしうごいたようでした。(p.174 引用)

라고 하는 三郎가 전학 온 9月 1日 아침의 교실 정경이나,

その時風がざあっと吹いて来て土手の草はざわざわ波になり、運動場のまん中でさあっと塵があがり、それが玄関の前まで行くと、きりきりとまわって小さなつむじ風にな

43) 山内 修, 「知らず共苦へ—少年小説論」(宮沢賢治ノート(6)), 『風狂』第10号, 1982.8, p.5

って、黄いろな塵は瓶をさかさまにしたような形になって屋根より高くのぼりました。

(p.182 引用)

의 9月 2日 내용 등에서 알 수 있듯이, 三郎가 등장하거나 어떠한 관련이 있는 장면마다 등장하는 바람이라는 장치는 단순한 연관성 그 이상의 어떠한 필연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그렇기에 三郎를 단지 도회지에서 전학 온 전학생, 더군다나 자연으로 상징되는 시골아이들과 대비되는 반자연적 존재로 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어른들이 강에서 発破를 하여 물고기를 포획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이튿날 어른들의 행위를 모방하는 시골 아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자연과 대립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보았을 때, 山内氏가 말한 것처럼 노래를 부른 것이, 자연 쪽에 선 아이들로부터 시작된 오염되고 변질된 반자연적 존재인 高田三郎를 향한 목소리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三.

그리고 「誰ともなく」 이하의 2행을 외친 主体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두고 村島正浩는 이렇게 말한다.

三郎はたんなる転校生ではなく風の精の又三郎として登場が期待されて作品が始まり、そのあかしとして嘉助の目を通じて風の精ぶりがみられ示され、しかしついに、三郎が転校生にすぎないという賢治の思いが強くうち出されて終る。(中略) 子供たちに想像された風の又三郎が夕立の中で吹き荒れる風の中に現れる様子は、この作品の頂点であるが、同時に賢治の中で一人の少年が高田三郎と風の又三郎に完全に分裂し、対峙さえ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示されている。(中

略) 三郎は単に三郎でしかない。44)

다시 말해, 村島氏が 보는 「雨はざっこざっこ雨三郎、風はどっこどっこ風三郎」라고 하는 것은, 작품 속에서 바람의 精霊으로서 기대되어져 온 소년 앞에 可視적으로 바람의 精霊 風の又三郎가 등장한 모습을 묘사한 부분으로, 주인공 三郎가 단지 전학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賢治의 의도가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村島氏の 주장을 두고 아래와 같이 지금까지 「高田三郎」로도 「風の又三郎」로도 생각되어지던 불확실한 正体の 한 소년이 이 곳에서 완전히 분열하여 대치하고 있다고 하는 天沢氏の 의견⁴⁵⁾에는 나 역시 동감한다. 분명 9月 8日の 이 장면에는 村島氏, 天沢氏が 인정한 바와 같이 어떠한 분열과 대치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분열과 대치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소년이, 아이들로부터 상상된 精霊 又三郎와 작가 賢治가 보는 단지 전학생에 지나지 않는 三郎로써 분열된 것이 아니라, 주인공인 바람의 精霊 風の又三郎, 그 내부에 있어서의 심리적 분열이며 내면적 대치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佐太郎가 山椒가루가 든 자루를 강물 속에 넣음으로써 강물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그 오염된 강물 속에서 三郎와 아이들이 모두 함께 술래잡기를 하는 것은 이러한 又三郎의 내면적 二分化 및 분열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月 8日 강을 오염시키는 아이들의 모습은, 9月 7日 강가에서 강을 더럽히고 있는 「専売局」를 향해 모두가 입을 모아 「あんまり川を濁すなよ、いつで

44) 前掲註 38) pp.36-37

45) 前掲註 39) p.286

も先生、言うでないか。」라고 외치던 모습과 모순되어 있다. 이 모순적인 행동의 이면에는 어른들이 発破를 이용하여 어획에 성공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건이 맞닿아 있으며, 아이들은 자연을 수호하려던 자연친화적인 성격에서, 스스로 자연을 오염시키고 훼손하는 파괴적인 양상으로 바뀐 것이다.

9月 8日, 三郎에게 있어서도 변화의 양상은 발견된다. 이 변화는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으며, 天沢氏が 앞서 제기한「誰ともなく」이하를 외친 主体가 누구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9月 7日 発破에 의해 떠내려 온 물고기를 기빠하며 정신없이 잡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発破를 주동한 庄助에게 어느 샌가 다가가「魚返すよ」라고 말하며 물고기를 돌려주고 온 三郎⁴⁶⁾였지만, 9月 8日 佐太郎가 가져온 山椒가루를 강에 넣을 때는 물을 보지 않고 하늘을 나는 검은 새를 응시하고 있을 뿐이다.⁴⁷⁾ 바람의 精霊 又三郎라면, 그리고 적어도 이제까지 보여진 전학생 三郎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에도, 그러한 아이들의 행동을 잠자코 방관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三郎은 침묵 속에 있다.

그러나 이 침묵은 방관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외면이다. 三郎에게 있어 아이들은「専売局」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려 한 수호적 존재임과 동시에, 三郎 자신도 자신이 가진 것을 스스로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仲間」로서의 존재이다. 여기서 바람의 精霊 又三郎의 정신적 대치가 처음으로 발생한다.

술래가 되어 아이들을 쫓는 과정에서

46) 附録 p.72 参照바람.

47) 附録 p.74 参照바람.

小さな子どもらはみんな砂利に上がってしまいました。又三郎はひとりさいかちの木の
下に立ちました。(p.208 引用)

와 같이 모두 砂利에 올라가 있고 又三郎 혼자만이 맞은편에 남게 되는데, 이처럼 오염된 강물을 사이에 두고 격리된 모습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묵시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면은 又三郎의 변화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으로, 갑자기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소나기와 함께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모두가 나무 아래로 몸을 피하고 又三郎도 어쩔지 처음으로 무서워진 듯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헤엄쳐 간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雨はざっござっこ雨三郎、風はどっこどっこ風三郎」라는 노래가 누군가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한다.⁴⁸⁾ 여기에서 주시해야 할 것은 「すると又三郎も何だかはじめて怖くなったと見えて」⁴⁹⁾라는 본문의 구절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던 又三郎이 갑자기 그것도 처음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왜일까. 그의 두려움은 대치된 自我와의 관계에 의해서 성립한다.

여기서 강은 아이들로 인해 자연의 순결성을 박탈당한 파괴되고 오염된 공간으로서, 이 강물 속에 들어감으로써 자연적 존재 바람의 精靈 又三郎은 본연의 正休性的 이탈을 경험, 이전의 又三郎이 아닌 변질된 又三郎으로써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강이라고 하는 오염된 공간을 통해 분열된 본질적인 自我는 형체로부터 분리된 채, 변질된 又三郎을 향하여 非難과 覺性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佐藤氏와 山内氏, 그리고 天沢氏가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先ご

48) 附録 p.76 参照바람.

49) 『風の又三郎』 p.208

ろ、又三郎から聞いたばかりのあの歌を一郎は夢の中でまたきいたのです。」⁵⁰⁾라는 마지막 9月 12日 서두부분이다.

여기에서 노래의 근원은 아이들이 아니라 분명 又三郎 자신에게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적어도 이 부분을 통해 아이들 자신의 의식만큼은 노래에 개입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본질적 自我로서의 又三郎의 노래를 들었고, 또 그 힘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자신들도 입을 모아 노래를 불렀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닌, 엄밀히 말해 자신들의 목소리가 아닌 본질적 自我로서의 又三郎의 의지이자 목소리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노래의 실질적 主体는 又三郎 하나이다. 又三郎가 아이들에게 「いま叫んだのはおまへらだちかい。」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そでない、そでない。」라고 강하게 부인하는 것도, 又三郎가 노래를 들은 다음,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 「気味悪さうに」 강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그것이 그 강으로부터 분리·이탈된 바로 又三郎 그 자신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따르면, 佐藤氏와 山内氏, 그리고 天沢氏의 주장처럼 「雨はざっこざっこ雨三郎、風はどっこどっこ風三郎」라는 9月 8日の 노래의 주체를 아이들이나 아이들의 입을 빌려 도회지의 소년을 거부하는 자연의 소리, 혹은 전학생이자 바람의 精靈인 又三郎이외의 그 누군가와 아이들에 의한 이중창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이러한 論들과는 달리 논자는 본 작품에서 보여 지는 바람의 精靈으로서의 又三郎의 존재성, 그리고 又三郎와 아이들 간의 관계변화의 양상과 강의 변질된 성격 등에 착안하여 이 노래의 主体가 바로 又三郎 그

50) 『風の又三郎』 p.209

자신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결국 아이들과 어른들 간의 대립구도가 아이들과 又三郎의 대립구도로 변질되고, 이것이 다시 又三郎 내부적 대치양상으로 이행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又三郎의 내부적 갈등이 오염된 강을 통해서 又三郎의 분열·대립으로 전이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9月 8日의 마지막 부분은 바람의 精靈 又三郎은 강을 사이에 두고 본질적 自我와 변질된 又三郎로 분열·대립된 채 존재하고 있는 대치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노래는 형체로부터 이탈된 본질적 自我가 변질된 又三郎을 향해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4. 「又三郎」의 永遠性

宮沢賢治에게 있어 자연의 無尽不滅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지구에 대한 자연의 정신을 암시하는 것⁵¹⁾이라고 하였다.

천문학과 기상학에도 큰 관심을 가졌던 과학자 賢治에게 장마와 태풍에 의한 주거지 파손과 농작물의 피해 등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東北지방의 岩手県の 곳은 기후⁵²⁾는 자신의 삶의 과정 속에 너무도 밀접하고 중대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에 그 같은 気象의 변화를 단순한 자연현상의 일부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리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賢治가 일생을 통해 수차례 경험한 不可抗力의 자연의 거대한 힘은 자

51) 前掲書 12) pp.177-184

52) 真壁 仁, 「賢治と飢餓の風土」 『鑑賞日本現代文学13「宮沢賢治」』, 角川書店, 1981, p.259

연에 대한 賢治의 사고와 인식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이것은 또 한 자연을 소재로 한 그의 수많은 작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본 장에서는 그러한 賢治의 인식을 바탕으로 〈気象变化〉의 양상과 더불어 아이들과 三郎간의 〈関係变化〉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이 둘 간의 관련성을 고찰 해 나가고자 한다.

『風の又三郎』에서 보여 지는 気象의 변화에 주목해 보면, 9月 8日 이전까지 三郎가 등장할 때는 언제나 시원한 바람이 상쾌하게 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9月 1日 又三郎가 등장한 첫 날 아침에는 푸른 하늘 아래 상쾌한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으며,⁵³⁾ 又三郎의 갑작스런 출현에 놀란 아이들이 숨소리를 죽이고 있는 순간에도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의해 교실 유리창이 덜컥 거리고 뒷산의 억새와 밤나무가 이상하리만치 파랗게 흔들리는 모습⁵⁴⁾을 보인다. 그리고 전학생 高田三郎가 바람의 精霊 又三郎임을 부정하는 佐太郎에게 嘉助가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반박할 때에도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창문을 울리고 양동이 속에 검은 잔물결을 일으키고는 사라진다.⁵⁵⁾

뿐만 아니라 9月 2日 又三郎가 운동장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도,

その時風がざあっと吹いて来て土手の草はざわざわ波になり、運動場のまん中でさあ
っと塵があがり、それが玄関の前まで行くと、きりきりとまわって小さなつむじ風になって、
黄いろな塵は瓶をさかさまにしたような形になって屋根より高くのぼりました。(p.182 引用)

와 같은 평온한 바람의 묘사가 이어진다.

53) 附録 p.53 参照바람.

54) 附録 p.54 参照바람.

55) 附録 p.58 参照바람.

그러나 9월 8일 강에서 경험한 본질적인 自我의 이탈 이후부터는 又三郎의 내적심리를 반영하듯, 파괴된 자연의 비명을 표출하듯 아래와 같이 격심한 氣象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そのうちに、いきなり上の野原のあたりで、ごろごろと雷が鳴り出しました。と思うと、まるで山つなみのような音がして、一ぺんに夕立がやってきました。風までひゅうひゅう吹きだしました。(p.208 引用)

이처럼 청명한 날씨 속에서 전개되던 三郎과 아이들의 親和적인 인간관계가 9월 8일을 기점으로 違和적인 관계로 전환됨과 동시에 氣象 또한 변화된다. 그리고 이 氣象의 변화가 최고조에 달한 것이 마지막 9월 12일이다.

外はもうよほど明るく、土はぬれておりました。家の前の栗の木の列は変に青く白く見えて、それがまるで風と雨とで今洗濯をするともいうように激しくもまれていました。

(p.209 引用)

이렇게 비바람이 부는 9월 12일은 이 작품에 있어서 가장 극심한 氣象의 변화이자, 又三郎과 아이들의 괴리감과 又三郎의 異常상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극심한 氣象변화와 더불어 三郎의 消滅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기에 이른다. 그러나 三郎의 消滅은 뚜렷하지 않다. 오히려, 「ふしぎなことは先生があたりまえの單衣をきて赤いうちわをもっているのです。」⁵⁶⁾라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선생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又三郎의 등교여부에 대해 묻는 嘉助의 질문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ちょっと考えて」대답을 하는 모습⁵⁷⁾을 보인다. 그리고

56) 『風の又三郎』 p.211

「そうだな。やっぱりあいつは風の又三郎だったな。」⁵⁸⁾라고 嘉助가 소리 높여 외쳤을 때 숙직실로부터 들려온 어떠한 소리와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빨간 부채를 들고 서둘러 들어가는 선생님의 기묘한 모습⁵⁹⁾으로부터 三郎의 消滅에 대한 의구심은 증폭된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다름 아닌 又三郎의 존재가 여전히 滯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암시라고 할 수 있다.

「赤いうちわ」라는 것은 9月 1日 三郎가 전학 온 첫 날, 교실 뒤에서 말없이 서 있던 三郎의 「父」가 가지고 있던 「白い扇」⁶⁰⁾와 一脈相通하는 것으로, 이것은 바람을 상징하는 매개이기도 하다.

三郎와 三郎의 「父」가 바람의 精霊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들고 있는 「赤いうちわ」는 그 精霊이 아직 消滅해 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9月 1日の 내용 중,

そのしんとした朝の教室のなかにどこから来たのか、まるで顔も知らないおかしな赤い髪の子供がひとり、いちばん前の机にちゃんとすわっていたのです。 (p.173 引用)

라고 묘사되어 있는 부분에서 빨간 머리의 又三郎가 이 「赤いうちわ」와 갖는 어떠한 필연적인 연관성은 가볍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そうだな。やっぱりあいつは風の又三郎だったな。」라고 嘉助가 소리친 순간에 들려왔던 어떠한 소리는, 「赤いうちわ」, 즉 「赤い髪の子供」인 바람의 精霊 又三郎의 殘存을 증명하는 것이리라고 생각되어 진다.

그러나 又三郎는 기존의 又三郎와는 이질적인 三郎이다. 본질의 自我와

57) 附録 p.78 參照바람.

58) 『風の又三郎』 p.211

59) 附録 p.78 參照바람.

60) 附録 p.57 參照바람.

분리·변질된 又三郎로 二分化 된 채 지극히 불안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본연의 모습인 바람의 精靈 又三郎로서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을 시에는 단지 청명한 바람이 약간의 흩먼지를 일으키며 얇게 일 뿐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는 온화한 氣象상태를 보인다. 그러나 강물 속에서의 술래잡기로 인해 二分化를 경험한 自我의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상태를 반증이나 하듯, 비바람이 함께 휘몰아치는 불안정한 氣象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雨はざっこざっこ雨三郎、風はどっこどっこ風三郎」라고 하는 二分化된 又三郎의 본질적 自我가 부르는 非難과 覺性에의 노랫말은 風の又三郎의 二分化의 징후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비바람이 혼재한 상황 속에서 불리어지는 「風三郎」는 바람의 精靈 風の又三郎의 존재를 일컫는 것임에 반해, 「雨三郎」라는 것은 이 「風三郎」가 본연의 모습에서 변질된 형태로 동일한 시공간에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月 8日 강가에서 아이들의 파괴적인 행위를 방관하고 술래잡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三郎에게 들려온 노랫말처럼 주위는 비가 내리고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 즉, 본질적인 風三郎와 변질된 雨三郎로서 분리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9月 12日 아침에는 더더욱 거세게 비바람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⁶¹⁾ 비와 바람이 혼재하고 있는 氣象상태가 9月 8日, 9月 12日 연속적으로 설정되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三郎가 분리된 채 殘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氣象의 변화라는 것은 又三郎의 정신적인 대처상황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바람의 자애로운 플러스

61) 附錄 pp.77-78 參照바람.

적인 이미지와 파괴적인 마이너스적인 이미지를 두고 판단 해 보았을 때, 플러스적인 이미지였던 것이 마이너스적인 이미지의 것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보여 진다.

이렇듯 三郎는 외부적으로는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상정되어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사의 증언 만에 한정된 것임으로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읽혀져 온 해석과는 달리 9月 12日의 본문을 상세히 분석하게 되면 又三郎가 사실상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로나마 아직까지 어딘가에 殘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又三郎가 消滅하지 않고 殘存해 있다는 사실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완전히 훼손된 채 방치되지만은 않으리라는 희망의 암시이기도 하다.

5. 「又三郎」와 作中人物間の 構図

동화 『風の又三郎』에는 宮沢賢治의 작품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다수의 다양한 인물군이 등장하는데 中村三春氏는 그들은 개인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로서 존재함과 동시에 전학생이라고 하는 특이성을 가진 高田三郎 만이 그 공동체와 相對化되는 이질적인 존재라고 하였다.⁶²⁾

그러나 여기에서 나타나는 공동체는 分子的인 다양성에 의해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평등하고 견고한 의미의 공동체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유일한 6학년생인 一郎를 리더로 하는 상급생 무리로부터 1학년의 저학년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시골마을의 작은 小學校에는 이미 표면상으로도 엄연한 계층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각각의 위치에 따른 실질적 영향력에 있

62) 前掲註 9) p.46

어서도 묵시적인 서열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계층사회의 인물군은 각기 三郎과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바람의 精靈 三郎가 작품 속에서 가지는 의미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본 장에서는 風の又三郎 처 作中人物의 〈關係〉를 명확히 함으로써 본 작품에 있어서의 복합적 구도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學校〉라고 하는 공동체의 공간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점점하고, 그 중 三郎과 가장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본 작품에서 宮沢賢治가 말하고자 하는 인간과 자연과의悲哀와 또 다른 가능성의 여부를 증명하는 일이 아닐까 한다.

5-1. 傍觀的 리더 「一郎」

우선 먼저 三郎에게 있어 우호적인 대상이자 『風の又三郎』에서 주인공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一郎를 들 수가 있다.

一郎는 유일한 6학년 상급생으로, 학년 전체를 통솔하는 리더적인 인물이다. 三郎가 전학 온 초기에는 三郎를 다소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시하지만, 점차 嘉助의 말처럼 그가 바람의 精靈인 又三郎라고 믿게 된다.

숲 속에서 함께 어울려 경마를 하기도 하고, 포도를 따러 가기도 하면서 一郎는 三郎의 「仲間」로서 점차 자리 매김을 해 간다. 특히 9月 7日 아이들과 함께 힘을 모아 「専売局」로부터 三郎을 보호하고 감싸주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강을 더럽히는 「専売局」를 향해 非難과 詰責이 담긴 警告를 주도하는 역할⁶³⁾을 함으로써, 三郎로써 대변되는 자연을 가장 적극적으로

63) 附録 pp.73-74 参照바람.

고 성실한 자세로 보호하고 조력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9月 8日, 자연으로부터 약탈을 자행하고 그것을 훼손시킨 어른들이 행동과 마찬가지로 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다른 아이들의 행위를 리더로서 저지하지 못하고 그저 방관만 하고 있는 모습⁶⁴⁾을 보임으로써 결국 다른 아이들과의 특이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만다.

뿐만 아니라 山椒가루를 타고 난 직후 강에서 아이들과 함께 한 술래잡기 놀이에서는 오히려 술래가 된 三郎과 대치한 상황에서,

一郎だけが、いちばん上で落ちついて、さあみんな、とかなんとか相談らしいことをはじめました。みんなもそこで頭をあつめて聞いています。(p.207 引川)

라는 본문에서 보여 지듯 다른 아이들을 통솔하여 三郎와의 대립상황을 더 더욱 적대적인 관계로 증폭시키는 지도자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一郎라는 존재는 결국 又三郎의 진정한 「仲間」가 될 수 없었고, 又三郎에게 있어서는 좌절감만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상이라고 보여 진다.

5-2. 最初の 発見者 「嘉助」

嘉助는 一郎와 더불어 三郎에게 우호적인 존재로서, 바람의 精霊 又三郎의 존재를 인식한 최초의 인물이다. 嘉助는 언제나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三郎에게 다가가 자신들과 무엇이든 함께 공유할 것을 권유하였고, 바람의 精霊으로서의 又三郎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타인들과는 달리 변함없이 又三郎의 존재를 믿어 의심치 않았던 「仲間」라고 할 수 있다.

宮沢賢治가 태어나 자라고 또 그의 작품들이 뿌리를 두었던 東北지방에

64) 附録 p.74 参照바람.

서는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을 일컬어 「カスケ」라고 불렀다⁶⁵⁾고 한다. 嘉助가 전학생 三郎의 바람의 精靈으로서의 존재성을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인식하였다고 하는 작품상의 설정자체가 이미, 그러한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람의 精靈 又三郎를 발견한 嘉助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최초의 発見’이라는 곳에서 끝이 나고 만다. 嘉助 그 자신 역시,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반증이나 하듯, 9月 8日 다른 아이들과 함께 강가에서 술래잡기를 할 때 누구보다도 가장 신랄하게 三郎를 향한 조롱을 퍼붓는다.⁶⁶⁾ 그리고 三郎는

又三郎の髪の毛が赤くてばしゃばしゃしているのに、あんまり長く水につかってくちびるもすこし紫いろなので、子どもらはすっかりこわがってしまいました。(p.207 引用)

라고 묘사된 바와 같이 무섭고도 기묘한 모습으로 嘉助를 붙잡는다. 이 때 三郎에 의해 강물을 마시게 된 嘉助는 「おいらもうやめた。こんな鬼っこもうない。」⁶⁷⁾라고 단언하게 되고 이리하여 아이들은 모두 又三郎에게 포획된 채 놀이는 終了된다.

이는 어른들의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순결한 자연을 파괴하고 더럽혀가면서까지 그 속에서 얻어지는 수확물을 취하려 했던 아이들이 되려 그들의 자신의 손에 의해 오염된 강물 속에서 스스로 포획된 결과를 낳고 만 것이며, 언제나 곁에서 三郎의 「仲間」가 되어 주었던 嘉助조차 결국에는 三郎와 대립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5) 大塚常樹, 「ボラーノ広場」, 角川文庫, 1996.

66) 附録 p.75 参照바람.

67) 『風の又三郎』 p.208

5-3. 反自然的 存在「佐太郎」

佐太郎은 三郎가 전학 온 첫 날부터 三郎와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마이너스적 관계를 유지해 온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의 精靈으로써의 三郎의 존재를 인정하는 嘉助에 반하여, 佐太郎은 그가 단지 전학생 高田三郎라고만 한정지을 뿐, 바람의 精靈으로써의 三郎의 존재를 일체 부정하고 있다.⁶⁸⁾

그리고 9月 2日 수업시간이 시작되었을 무렵, 여동생 かよ의 연필을 강제로 빼앗는 난폭함을 보이는 자신에게 三郎가 제 연필을 주고서는 정작 그 자신은 어디서 구해 왔는지 모를 석탄조각을 사용하여 수업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三郎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는 9月 8日 오전에는 山椒가루가 든 자루를 학교로 가져와 그 전날 어른들이 강가에서 저지른 発破행위를 흉내 내는데 앞장선다.

みんな急いで着物をぬいで淵の岸に立つと、佐太郎が一郎の顔を見ながら言いました。「ちゃんと一列にならべ。いいか、魚浮いて来たら泳いで行ってとれ。とったくらい与るぞ。いいか。」 (p.206 引用)

이처럼 発破를 주동하여 물고기를 포획했던 어른 庄助는 山椒가루를 사용하여 물고기의 포획을 주동하는 어린 소년 佐太郎에 의해 모델링 되어 다시금 강에 출현한 것이다. 즉, 佐太郎은 庄助의 모습을 답습할 뿐만 아니라, 三郎로부터 즉 자연으로부터 언제나 일방적으로 받기만하고 포획하려고만 들 뿐, 친자연적인 행위는 결코 하지 않는 반자연적 존재로 상징화되어 나타난다.

68) 附録 p.58 参照바람.

5-4. 对立的 存在「耕助」

耕助는 佐太郎와 마찬가지로 三郎와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三郎가 전학 온 9月 1日에는 五郎의 발을 밟았던 탓에 三郎가 갑자기 교실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동기를 부여⁶⁹⁾하였을 뿐 아니라, 9月 6日 자신이 애써 발견한 포도밭에 전학생 三郎를 함께 데려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무심코 담배 잎을 떼 내어 버린 三郎의 행위를 두고 계속해서 非難하고 追窮⁷⁰⁾했던 인물이다.

숲 속에서는 三郎와 바람에 관한 논쟁⁷¹⁾을 벌이기도 하는 등 三郎와는 지속적으로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게 되는 존재라 할 수 있으며, 9月 7日에는 兎破를 주도한 庄助에게 三郎가 되돌려 주었던 물고기를 일부러 해엄쳐 가서 다시 가지고 올 만큼⁷²⁾, 포획물에 대한 소유욕이 강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처럼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취한 포획물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耕助의 모습은 그가 庄助와 동일선상에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고 말할 수 있다.

더불어 9月 8日 佐太郎가 탄 山椒가루의 효력이 눈으로 입증되지 않자 「さっぱり魚、浮かばないな。」라고 말하며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耕助의 모습⁷³⁾은 9月 7日 庄助가 兎破 직후 「さっぱりいな。」라고 말하던 모습⁷⁴⁾의 모방이라고 할 수 있기에, 庄助와 耕助의 동질적인 색채는 여기서

69) 附録 pp.54-55 参照바람.

70) 附録 pp.68-69 参照바람.

71) 附録 pp.69-70 参照바람.

72) 附録 pp.72-73 参照바람.

73) 附録 p.75 参照바람.

74) 附録 p.72 参照바람.

다시 한번 확인된다고 하겠다.

5-5. 無批判的 追従者 「ペ吉」

天沢氏は「雨はざっこざっこ雨三郎、風はどっこどっこ風三郎」의 부분을 두고 이 노래를 主唱한 主体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子どもたちのひとりであるが、しかし決して子どもたちの中のひとりではなく、〈みんな〉に加わっていながら〈みんな〉とは別にある存在—（中略）「雨はざっこざっこ雨三郎、風はどっこどっこ風三郎」と、誰ともなく発声したのは、決して子どもたちの中のひとりではないが、そこにいた子どもたちの一人としてまぎれこんでいた、土地の精霊に疑しうる存在であると思われるのである。とすればそれは、〈風の風三郎〉ではない。むしろその対立者とみるべきである。⁷⁵⁾

그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風の又三郎』의 분석에 있어서 「ざしき童子のはなし」와 『風の又三郎』의 두 작품 사이에서 연계된 이미지를 찾는 天沢氏의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ざしき童子のはなし」는 열 명의 어린 아이들이 「大道めぐり、大道めぐり」라고 외치며 양손을 맞잡고 다다미방 안을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 열 명이었던 아이들이 어느 샌가 모두 열 한명이 되어 있는데, 기묘한 것은 그중 어느 누구 하나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 없고, 아무리 다시 세어 봐도 아이들의 수는 모두 열 한명으로, 결국 그 추가된 마지막 열 한 번째 사람이 바로 「ざしき童子」이었다라고 하는 宮沢賢治의 동화작품이다. 天沢氏는 이 「ざしき童子のはなし」로부터 『風の又三郎』의 「誰ともなく」이하의 노래를 외친 존재를 착안, 그것이 주인공 風の又三郎와 대립하는 土地의 精霊이라

75) 前掲註 39) p.290

고 보고 있다. 따라서 高田三郎가 과연 바람의 精靈 風の又三郎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와는 별개의 개체, 즉 바람의 精靈 風の又三郎와는 대립적인 관계의 어떠한 ‘土地의 精靈’이 존재하고 있음에 주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ぺ吉의 역할과 행동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9月 8日の

「いま叫んだのはおまへらだちかい。」とききました。「そでない、そでない。」みんなは一しょに叫びました。ぺ吉がまた一人出てきて、「そでない。」と云いました。

(p.209 引用)

라는 구절을 道化的⁷⁶⁾ 存在로서의 ぺ吉의 발언이라고 밝히고 있다.

道化란 본래 성스러운 것과 영적인 것과는 表裏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ぺ吉가 일부러 앞으로 나와 한마디를 덧붙인 것은 확실히 그 배후에 존재하는 어떤 누군가가 不可視적인 공간으로 다시금 三郎를 끌어당긴 것⁷⁷⁾이라고 보는 것이 天沢氏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論은 바람의 精靈 風の又三郎가 작품 속에서 보여 준 수많은 복선과 암시가 지니는 무게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논자는 최초의 9月 1일부터 마지막 9月 12일에 이르기까지 현저하게 나타나는 三郎의 〈心理變化〉에 대응하는 〈氣象變化〉와의 동질적인 연관성, 그리고 9月 7日 発破를 수단으로 한 어른들의 무분별한 포획행위에 대하여 유일하게 냉소적인 시선으로 이를 바라보다 결국 혼자 나서서 그 포획물을 강하게 거부했던 三郎의 행동 등에 주목하며 이것이 자연으로 대변되는 바람의 精靈으로서의 존재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9月 8日 그 전날 어른들이 행한 発破를 흉내 내는 아이들의 모방적

76) 웃음을 유발시키는 익살스러운 몸짓이나 말. 또는 그러한 사람.

77) 前掲註 39) p.292

답습행위에 대해, 하늘 위를 날아가는 검은 새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키고 서있던 三郎의 모습, 그리고 다른 아이에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고서라도 그들과의 정신적 교감을 나누려 홀로 노력했던 三郎의 모습과 그에 대한 아이들의 행동변화의 양상 등은 三郎가 평범한 한 소년이기보다는 자연의 精靈으로서의 유일무이한 존재감을 확인하게끔 하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배제한 채 반복적 발언을 하는 ぺ吉의 역할과 행동을 두고 배후의 어떠한 영적인 존재의 발현으로 보는 天沢氏の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9月 8日 佐太郎가 강물 속에 山椒가루를 타려고 하는 순간 ぺ吉는 다른 몇몇 아이들과 재빨리 그 강물 속에 들어가 맞은편 나무 아래까지 헤엄쳐 가서 물고기가 잔뜩 떠오르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⁷⁸⁾ 그리고 물고기가 기대대로 얻어지지 않자

「さっぱり魚、浮かばないな。」耕助が叫びました。佐太郎はびくっとしましたが、
まだ一心に水を見ていました。「魚さっぱり浮かばないな。」ぺ吉がまた向こうの木の
下で言いました。 (p.206 引用)

와 같이 다른 아이를 뒤따라 포획의 실패자에게 非難을 한다. 즉, 자연의 포획물을 가장 원하고 기대했던 이들 중의 하나가 바로 ぺ吉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논자는 ぺ吉가 天沢氏が 주장하는 것처럼 영적 존재의 대리자로서 추정될 만한 어떠한 복선적 성격의 말이나 행동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단지 다른 아이들의 말을 따라서 한마디 더 내뱉는 추종적인 성격의 主体性 없는 인물로 작품 속에 상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보여 지며, 만약 그가 不可視的인 영적 존재, 다시 말해 자연의 精靈의 表

78) 附錄 p.74 參照바람.

裏的 존재였다고 한다면, 그가 그토록 자연에 대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로 얻은 포획물을 원하고, 그토록 파괴적인 행동에 누구보다 열심히 동참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5-6. 唯一한 支持者「先生」

9月 1일부터 9月 12日 三郎가 갑작스레 사라지는 그 날까지 교사는 작품 속에 단 네 번 밖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9月 1日에는 전학생 三郎를 아이들에게 소개시키고 방과 후 교실 뒤에서 부채를 들고 서 있던 三郎의 「父」와 인사를 나눈다. 그리고 9月 2日과 9月 7日에는 수업을 진행하는 장면이 짙막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마지막 9月 12日의 비바람이 부는 이른 아침에는 홀웃 차림에 빨간 부채를 들고 나타나 一郎와 嘉助에게 三郎가 「父」와 함께 다른 곳으로 떠났음을 전해 줄 뿐이다.

그러나 교사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교사의 존재가 누구보다 중요한 복선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月 1日 교사는 아이들에게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지 여겨졌던 낯선 모습의 三郎를 전학 온 새로운 전입생 친구로 소개하고,

「高田さんはいままでは北海道の学校におられたのですが、きょうからみなさんのお友達になるのですから、みなさんは学校で勉強のときも、また栗拾いや魚とりに行くと
きも、高田さんをさそうよう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わかりましたか。わかった人は手
をあげてごらん下さい。」 (p.177 引用)

라고 말하며, 그들의 사회 속으로 三郎를 적극적으로 編入시킨다. 이로써 三郎는 교사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최초로 受容되어지게 된다. 교사의 이

말대로 아이들은 三郎과 함께 포도를 따거나 밤을 줍기 위해 숲 속에 가는 등, 교사의 개입 이전까지만 해도 三郎을 경계하고 있던 아이들이 조금씩 자신들의 세계로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것은 아이들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을 반증하는 것임과 동시에, 작품 속에서 교사가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9月 12日의 사건은 교사의 역할이 가지는 의미와 함께 교사와 三郎와의 관계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月 8日 사건 이후 아이들의 세계에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괴리감을 느끼고, 또 자연적 본연의 自我까지도 二分化된 채, 어디선가 들려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두려운 듯 강물 속을 바라보며 떨고 있는 三郎의 마지막 모습과, 9月 12日 거센 바람과 비가 혼재하는 気象상태 속에서 빨간 부채를 손에 들고 나타난 교사의 모습 사이에는 결코 쉽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어려운 필연적인 연결고리 같은 것이 보인다.

교사가 바람으로 상징되는 빨간 부채를 들고 나타났다는 설정 그것은 본연의 바람의 精靈 又三郎의 존재의 回復 혹은 再生에 대한 희망을 암시하는 의미라고 생각되어 진다.

이 부분이 又三郎의 완전한 消滅이 아닌 殘存을 암시한다면, 그래서 작품의 말미부분에 드리워졌던 부정적이고 어두웠던 분위기로부터 한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끔 만들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째서 그것이 교사에 의해서였는지는 바로 교사가 ‘伝達, 伝承’의 역할을 담당하는 伝達者로서의 상징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직전의 9月 8日의 사건에 연이은 작품의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지극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교사는 又三郎로 상징화되는 부채를 들고 나타난다. 이는 맨 처음 바람의 精靈 又三郎을 아이들의 세계로 轉入시킨 존재가 다름 아닌 교사이기 때문에 그 回歸 역시 교사에게 향하는 것은 불가결한 것

일 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원리에 기인한다.

9月 1日 三郎라고 하는 ‘자연적 존재’는 교사에 의해 아이들에게 傳達되어 진다. 그리고 교사는 아이들에게 三郎와 친하게 지낼 것을, 즉 자연친화적인 사고와 행동을 가르친다. 교사의 가르침에 따라 아이들은 그 자연적 존재와의 교류를 충실히 이행한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결국에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에 의해 死藏되어 지고 만다. 그리고 인간의 손에 의해 훼손당하고 변질된 자연은 다시금 최초의 傳達者에게로 되돌아온다.

9月 12日의 말미 부분이 희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又三郎가 아직 殘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교사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 다시 말해 ‘教育’을 통해 다시금 본질적인 모습으로 傳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데 있다.

오랜 세월동안 교직에 몸담아 온 교육자로서 宮沢賢治가 생각하는 교사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傳達하고 가르쳐 그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에 있을 것이다. 인간적인 체념에 대해 방관자적 입장에서 안주하지 않고 사명을 지닌 자로서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던 그의 교육관이 작품의 주제에까지 농후하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는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교육관과 교사상이 작품의 인물과 역할 설정 상에 있어서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風の又三郎』에서 교사는 〈学校〉라는 공동체의 頂点에 존재하되, 아이들의 세계와 공간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물로서, 다만 아이들로 하여금 자연의 소중함과 그 자연과의 조화를 지향케 하는 가르침을 전수하는 조력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자연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이들의 몫일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9月 7日「専売局」를 향해「あんまり川を濁すなよ、いつでも先生、言うでないか。」라는 외침을 한 아이들의 공동체가 9月 8日에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변질된 모습을 보이게 된 것 역시 아이들이 최초로 받아들인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이해가 잠재된 이기심에 의해 파괴되어 버린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교량적 존재로서의 교사라고 하는 역할이 작품 속에서 가지는 중요성이자 한계라고 할 수 있다.

「風の又三郎」와 作中人物들간의 구도를 살펴 본 결과「仲間」로서 인식되었던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모두가 又三郎와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又三郎와 가장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는 존재가 다름 아닌 교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사는 자연의 精霊인 又三郎를 아이들에게 伝達하고 編入시킬 뿐만 아니라, 변질되고 훼손된 채 아이들의 사회로부터 추방당한 又三郎를 다시금 受容함으로써 又三郎가 消滅되지 않고 남을 수 있는 조력자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教育을 통해 인간과 자연간의 不調和의 悲哀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는 또다시 再生되리라는 희망을 부여하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先生」인 것이다.

6. 複合的 対立構図

『風の又三郎』에서 나타나는 대립구도라고 하는 것은 작품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은 단순히 아이들 처 어른, 혹은 아이들 처 자연이라는 二元論的인 논리로는 파악되지 않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대립적 구도는 모두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 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자연을 수호하려는 아이들과 자연을 파괴하려는 어른들과의 대립구도라 할 수 있다.

9月 7日 아이들이 강가에서 만난「専売局」를 향해 입을 모아 강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하는 모습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순응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된 아이들이 그러한 자신들의 가치관에 부합되지 못하는 어른들의 행위에 대해 警告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이 강에서 発破를 하여 물고기를 잡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서, 이튿날 그 어른들의 행동을 아이들이 그대로 모방하게 되는 9月 8日의 모습은 자연을 수호하던 이전까지의 모습과는 상반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9月 7日까지 유지되어 온 아이들 처 자연을 파괴하는 어른들 간의 대립적 구도가 9月 8日에는 자연의 精霊 义三郎 처 강을 오염시키는 아이들 간의 대립구도로 변화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과의 합일을 이루고자 그들의 사회에 編入되었던 바람의 精霊 义三郎와는 달리, 아이들은 우연한 기회에 얻게 된 포획물로 말미암아 어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모방하는 것에 훨씬 더 적극적이었으므로 이로 인해 아이들과 어른들 간의 대립구도가 아이들과 义三郎와의 대립적 구도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어른들과 아이들의 대립구도와 义三郎와 아이들의 대립구도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义三郎의 내부적인 대립구도 양상이다. 이 마지막 대립구도는 본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 구도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風の又三郎』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 생각되어 진다.

9月 8日 山椒가루로 강을 더럽히며 파괴적인 행위로 어획에 몰두하고 있는 아이들과 이를 목격한 자연의 精靈 又三郎 사이에는 분명 인간과 자연으로서의 대치관계가 성립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9月 7日 発破에 의해 떠내려 온 물고기를 기빠하며 정신없이 잡는 아이들과 달리 이를 강하게 거부했던 三郎가 어찌된 일인지 이때는 외면하며 침묵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방관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외면이다.

三郎에게 있어 아이들은「専売局」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려 한 수호적 존재임과 동시에, 三郎 자신도 자신이 가진 것을 스스럼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仲間」로서의 존재이기에 여기서 바람의 精靈 又三郎의 정신적 대치가 처음으로 발생한다.

이 같은 又三郎의 정신적 대치와 내부적 갈등이 오염된 강을 통해서 又三郎의 분리·대립으로 전이되어진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강은 아이들로 인해 자연의 순결성을 박탈당한 파괴되고 오염된 공간이다. 이 변질되고 오염된 공간 속에 들어감으로써 자연적 존재 바람의 精靈 又三郎은 본연의 正体性의 이탈을 경험, 이전의 又三郎가 아닌 변질된 又三郎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강’이라고 하는 오염된 공간을 통해 분열된 본질적인 自我는 형체로부터 분리된 채, 변질된 又三郎를 향하여 非難과 覺性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본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気象의 변화라는 것은 이러한 又三郎의 내부적인 대립구도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바람의 자애로운 플러스적인 이미지와 파괴적인 마이너스적인 이미지를 두고 판단 해 보았을 때, 플러스적인 이미지였던 것이 마이너스적인 이미지의 것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보여 진다.

본연의 모습인 바람의 精靈 又三郎로서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을 시에는 단지 청명한 바람이 약간의 흩날림을 일으키며 얇게 일 뿐,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는 온화한 氣象상태를 보였었으나, 강물 속에서의 술래잡기를 계기로 二分化를 경험한 自我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반증하듯, 비바람이 함께 휘몰아치는 불안정한 氣象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비바람이 부는 9月 12日は 이 작품에 있어서 가장 극심한 氣象의 변화이자, 又三郎와 아이들의 괴리감과 又三郎의 異常상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又三郎의 消滅에 대한 소식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창 밖에는 쏟아지는 빗줄기와 함께 거센 바람이 함께 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의 精靈인 又三郎를 아이들에게 伝達하고 編入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장면에서 바람으로 상징되는 빨간 부채를 손에 들고 나타난 교사의 기묘한 모습은 아직까지 又三郎가 消滅되지 않고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비바람이 공존하고 있는 氣象상태는 二分化된 又三郎의 내부적 대립구도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러한 氣象상태 속에서 보여 주는 교사의 암시적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又三郎의 殘存과 再生에 대한 희망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III. 結論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風の又三郎』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자연을 사랑하고 수호하려는 아이들과, 그에 반하는 어른들과의 二分法的인 대립관계를 위주로 논리를 해석하거나 혹은 자연을 상징하는 시골마을의 村童들과 그와는 이질적인 도시의 반자연적 존재인 三郎의 관계를 대치시켜 작품을 파악하려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사에서 볼 수 있는 단순한 二分法的 대립구도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텍스트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風の又三郎』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복합적인 대립구도를 발견하였다.

복합적인 대립구도라고 하는 것은, 一次的으로는 작품의 초기 자연으로 상징되는 又三郎과 아이들, 그리고 그와는 차별되는 반자연적인 행위를 표출하는 어른들과의 대립적 구도로서 나타나며, 二次的으로는 작품 중반 이후 그 어른들의 행동과 의식에 점차적으로 동화되어 가는 아이들과 자연을 계속해서 수호해 나가려는 바람의 精靈 又三郎 간의 대립적 구도가 나타난다. 또 三次的인 대립구도는 작품의 후반부 「仲間」로 여겼던 아이들의 변화된 배반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강에서 자신의 正体性を 상실하기에 이르는 又三郎 내부에 있어서의 본질적 又三郎과 변질된 又三郎로서의 대치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又三郎은 바람의 精靈으로서, 〈風〉라고 하는 긍정적인 플러스 이미지와, 파괴적인 마이너스 이미지를 동시에 수반하는 자연의 근원적 생명력이라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又三郎가 가진 긍정적이면서도 파괴적인 에너지는 아이들의 행동변화와 의식변화의 흐름에 따라 점

차 플러스적인 성질에서 마이너스적인 성질로 변모해 간다. 그리고 그 변화의 양상은 마지막 9월 12日 가장 극단적이고 극한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거센 바람과 비가 혼재한 혼란스럽고 파괴적인 可視的 세계, 그것은 自我의 분리·이탈을 경험한 又三郎의 대치된 두 自我가 공존하고 있는 不可視的 세계의 반증이며, 표면적으로 상정되는 又三郎의 消滅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

9월 12日의 말미부분을 두고 결코 그것이 風の又三郎의 消滅이 아닌 殘存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희망적인 이미지를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이유는, 伝達者로서의 교사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다. 9월 1日 아이들의 세계에 자연의 精靈 又三郎를 적극적으로 轉入시키고, 9월 12日 그들로부터 훼손된 자연의 상징 又三郎의 回歸를 受容하는 존재인 교사의 역할은, 언젠가 又三郎가 또다시 아이들의 사회로 編入되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風の又三郎』에서 又三郎가 乖離와 悲哀를 느낀 채 인간으로부터 소외되어 진다라는 비극적인 한계를 지닌 결말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금 그 괴리감의 간격을 좁히며 인간과 자연간의 調和를 지향해 나가는 긍정적인 희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9월 12日의 마지막 부분이다.

宮沢賢治는 「種山ヶ原」와 「さいかち淵」 등의 전작에서는 경외로움과 환타지를, 그리고 又三郎를 영적인 존재인 바람의 精靈으로 등장시켜 気象과 자연에 관한 내용을 설파한 전작 「風野又三郎」에서는 교훈과 판타지를 동시에 담아냈다.

그러나 전작 「風野又三郎」와는 달리 『風の又三郎』에서는 극히 판타지적인 요소를 배제시키고, 자연을 파괴하고 경시하는 인간의 파괴적이며 폭력적인 행위와 의식의 문제를 중대한 現實問題로서 인식하고자 하고 있다.

즉, 소박하고 순수했던 村童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인간본연의

이기와 욕망에 사로잡혀 변질되어 가는 양상,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훼손되어져 가는 자연의 悲劇과 悲哀가 지금 우리의 삶과 마주한 심각한 現實問題임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등장인물을 현실 속으로 編入시키되, 가능한 한 동화의 환타지적 요소와 기교를 절제하고, 보다 사실적인 어조로 작품을 그려내고 있다고 보여 진다.

동화 『風の又三郎』는 「デクノボー」⁷⁹⁾와 같은 자연적인 無慾의 삶을 지향했던 작가 자신의 理想과 그에 대립하는 현실세계와의 모순적인 관계 사이에서 태어난 悲哀와 虛無가 나타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작가의 비극적 영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 인간간의 아직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희망적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보인다. 또 그것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인간과 자연의 共同의 과제에 대한 암시라고 생각한다.

본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자연과 인간간의 二分化라고 하는 단순하고도 극명한 一次的 대립구도와 함께 又三郎의 消滅을 끝으로 작품이 종결되는 염세적 결말구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 실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보다 복잡적이고 多分化된 대립구조와 자연의 精靈 又三郎의 殘存을 의미하는 암시적 결말구도라고 하는 것은, 宮沢賢治 자신의 理想과는 다른 可視的 세계에 대한 悲哀인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 〈絶望의 의식〉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합일을 갈망하며 작가가 死力을 다해 외치고 있는 自覺과 覺性에의 추구이다.

자연과 인간간의 관계를 다룬 賢治의 여타 동화작품에 있어서의 결말구도를 살펴보면 「狼森と策森、盜森」 「セロ弾きのゴーシュ」 「どんぐりと山猫」 등의 작품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친화적이고 긍정

79) 木偶の坊. 木偶는 고케시를 가리키는 방언으로, 賢治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理想的 인간상을 말한다.

적 구도로서 그려졌고, 『注文の多い料理店』과 같은 작품의 결말은 자연에 도전한 인간의 일방적인 패배감이 농후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さいかち淵」에서는 인간으로부터 침범당한 자연의 비애감에 치중한 비극적 구도의 양상이 있었다. 이에 반해 본 작품은 인간과 자연간의 調和와 悲哀, 그리고 再生과 回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세계만물의 평화와 조화를 추구하였던 작가자신의 범세계적인 우주관이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어 표출되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風の又三郎』에서 보여 지는 二元論的인 구도만을 논해 왔으나 논자는 본 論文에서 복합적이면서도 이질적인 대립구도양상을 발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립구도를 반증하는 불안정한 氣象의 지속성과, 교사가 가지는 존재의 특이성에 착안하여 又三郎가 사라지는 작품의 종결부분은, 消滅이 아닌 殘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작품의 또 다른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같은 복합적 대립구도와 風の又三郎의 永遠性에 주목해 보았을 때, 이러한 복합적인 대립구도와, 비바람이 혼재하는 氣象상태 속에서 바람의 상징물을 들고 나타난 교사가 암시하는 자연적 존재의 殘存에 대한 희망적인 가능성이 賢治동화의 근저를 이루는 중요한 本質的 정서의 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 参考文献 *

- 天沢退二郎, 『宮沢賢治論』, 筑摩書房, 1976.
- _____, 『謎解き・風の又三郎』, 丸善ライブラリー, 1991.
- _____, 『宮沢賢治の彼方へ』, 思潮社, 1968.
- _____, 『宮沢賢治全集7 〈風の又三郎解説〉』, ちくま文庫, 1985.
- _____, 「『風の又三郎』 再考1—『9月8日』の意味をめぐって—」
『言語文化』第2号, 言語文化研究所, 1984.2.
- 草野心平 編, 『宮沢賢治研究Ⅱ』, 筑摩書房, 1981.
- 栗原 敦 編, 『宮沢賢治童話の宇宙』, 有精堂, 1990.
- 吉田精一, 『鑑賞宮沢賢治全集』, 天明社, 1960.
- 境 忠一, 『宮沢賢治論』, 桜楓社, 1975.
- _____, 『評伝宮沢賢治』, 桜楓社, 1968.
- 佐藤通雄, 『宮沢賢治の文学世界—短歌と童話—』, 泰流社, 1979.
- 統橋達雄, 『宮沢賢治童話の世界』, 桜楓社, 1996.
- _____, 「風の又三郎」 『別冊国文学』第6号, 学灯社, 1980.5.
- 大塚常樹, 「ポラーノ広場」, 角川文庫, 1996.
- 宮沢賢治, 『宮沢賢治全集 第11巻 童話〔Ⅳ〕』, 筑摩書房, 1995.
- 宮城一男, 『宮沢賢治と自然 作品鑑賞』, 玉川大学出版部, 1983.
- 原 子朗, 『新宮沢賢治語彙辞典』, 東京書籍株式会社, 1999.
- 遠藤 純, 「『風の又三郎』成立に関する考察 —その出版に携わった人々—」
『賢治研究』第61号, 宮沢賢治研究会, 1993.9.
- 古賀良子, 「賢治の少年小説について」 『四次元』, 宮沢賢治研究会,
1957.3.
- 小沢俊郎, 「種山ヶ原」 『別冊国文学』第6号, 学灯社, 1980.5.

- 島村 輝, 「風の又三郎」 『国文学 解釈と鑑賞』 第66卷8号, 至文堂,
2001.8.
- 村島正浩, 「宮沢賢治論-風の又三郎からカンパネラへ／そしてみんながカンパ
ネラへ」 『星座』 第2号, 矢立出版, 1982.8.
- 中村三春, 「風〔の〕 又三郎」 『国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 第48卷3号,
学灯社, 2003.2.
- 西田良子, 「『風の又三郎』—日本児童文学史の視点から」 『国文学
解釈と鑑賞』 第58卷9号, 至文堂, 1993.9.
- 貞壁 仁, 「賢治と飢餓の風土」 『鑑賞日本現代文学13 「宮沢賢治」』,
角川書店, 1981.
- 山内 修, 「知から共苦へ—少年小説論」 (宮沢賢治ノート(6)) 『風狂』
第10号, 1982.8.
- 김윤정, 「宮沢賢治의 兒童研究 : 視覺的·聽覺的 要素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경연, 「宮沢賢治의 동화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경현, 「宮沢賢治의 동화에 나타난 「바람」의 의미」,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황희주, 「宮沢賢治と童話の世界」, 상명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附 録]

바람의 마타사부로(風の又三郎)⁸⁰⁾

[9월 1일]

우르릉 우릉 우르르릉 우르릉
푸른 호두도 날려 버려라
시큼한 모과도 날려 버려라
우르릉 우릉 우르르릉 우르릉
우르릉 우릉 우르르릉 우르릉

골짜기를 흐르는 강가에 작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교실은 단 하나뿐이었지만, 학생은 3학년만 없을 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운동장도 테니스 코트 정도의 크기였지만 바로 뒤에는 밤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동산인데다 운동장 구석에는 풍풍 차가운 물이 솟아나는 바위샘도 있었습니다.

상쾌한 9월 1일 아침이었습니다. 푸른 하늘에서 바람이 휘익 하고 불고 햇빛은 운동장에 가득하였습니다. 검은 바지를 입은 두 명의 1학년생이 독을 돌아 운동장에 들어와서는 아직까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와아, 내가 일등이다, 일등.”하고 번갈아 외치며 기뻐하면서 문에 들어왔지만 얼핏 교실 안을 보고는 두 사람 모두 너무도 놀라 우뚝 멈춰선 채 얼굴을 마주보고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용한 아침의 교실 안에 어디서 왔는지, 전혀 본 적도 없는 이상한 빨간 머리의 아이 하나가, 맨 앞자리에 턱하니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상이라고 하면 바로 이 울고 있는 아이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아이도 이미 반쯤 울고 있었지만 그래도 억지로 눈을 크게 뜨고 그 쪽을 노려보고 있는데 강 위에서 “짜우는 포도장수, 짜우는 포도장수.”하고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치 커다란 까마귀처럼 카스케가 가방을 들고 웃으며 운동장으로 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서 사타로와 코스케 등이 우당탕탕 달려왔습니다.

“왜 울어? 내가 울렸어?” 카스케가 울지 않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도 와앙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모두가 주위를 둘러보니 교실 안에 빨간 머리의 아이 하나가 태연히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들

80) 『風の又三郎』 原文翻訳은 朴順徳에 의한 것임.

어왔습니다. 모두 조용해 졌습니다. 점차 아이들이 모여들고 여자아이들까지 왔지만 누구도 뭐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빨간 머리의 아이는 전혀 무서워하는 기색도 없이 여전히 똑바로 앉아 칠판만 골똥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때, 6학년인 이치로가 왔습니다. 이치로는 마치 어른처럼 천천히 큰 보폭으로 걸어와서는 아이들을 보며 “왜들 그래?”하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웅성웅성 소리를 내며 그 교실 안의 이상한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이치로는 잠시 그 쪽을 바라보고 있더니 이윽고 가방을 짊 끌어안고는 성큼성큼 창문 아래로 갔습니다. 모두들 기세 좋게 뒤따라갔습니다.

“누구야? 시간도 되기 전에 교실에 들어온 게.” 이치로는 창에 기어올라 교실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고서 말했습니다.

“날씨 좋은데 교실에 들어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혼나.” 창 밑에서 코스케가 말했습니다.

“혼나도 난 몰라.” 카스케도 말했습니다.

“얼른 나와, 나와.” 이치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멀뚱멀뚱 교실 안과 아이들을 바라만 볼 뿐, 여전히 무릎에 손을 올려놓은 채 의자에 앉아있었습니다.

애당초 그 모습부터가 정말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험령한 회색 윗도리에 하얀 반바지를 입고 거기에 빨간 가죽신을 신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얼굴은 마치 잘 익은 사과 같고 특히 눈은 동그랗고 새까맣습니다.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듯해서 이치로도 무척 당황했습니다.

“저 녀석 외국인인가.” “학교에 새로 들어오나 보다.” 다들 웅성웅성 떠들어 댓습니다. 그런데 5학년의 카스케가 느닷없이 “아아, 3학년에 들어온다.” 하고 소리쳤기 때문에 “아, 그래 맞아.”하고 어린 아이들은 생각했지만, 이치로는 말없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한 아이는 변함없이 멀뚱멀뚱 이쪽을 바라볼 뿐 꿈쩍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때 바람이 휘익 불어와 교실 유리창은 모두 덜컹덜컹 울리고 학교 뒷산의 억새와 밤나무는 이상하리만치 파랗게 질려 흔들리고, 교실의 아이가 어쩐지 히죽 웃으며 약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카스케가 바로 소리쳤습니다. “아, 알았다. 저 녀석은 바람의 마타사부로다.” 그렇구나하고 다들 생각할 때 갑자기 뒤쪽에서 고로가 “아야, 아프잖아.”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다들 그 쪽을 돌아보니 고로가 코스케에게 발을 밟혀 몹시 화를 내며 코스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코스케도 화가 나서 “자기가 잘못하고는 왜 때려?”하며 고로를 치려고 했습니다. 고로는 얼굴이 온통 눈물범벅이 되어 코스케에게 달려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치로가 막고 카스케는 코스케를 붙잡았습니다. “너희들 싸우다간 선생님한테 교무실로 불러간다.”하고 말하면서 다시 교실 쪽을 본 이치로는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교실에 있던 그 이상한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겨우 친해진 망아지가 멀리 달아나거나 모처럼 잡은 참새가 도

망이라도 친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또다시 휘익 하고 불어와 창문 유리가 덜컹거리고 뒷산의 억새는 점점 상류 쪽으로 파랗게 물결쳐 올라갔습니다.

“너희들이 싸우니까 마타사부로가 없어진 거야.” 카스케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다들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로는 정말 미안해져서 발이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어깨를 움츠리며 일어섰습니다.

“역시 그 녀석은 바람의 마타사부로였어.”

“이백십일이라 온 거야.” “구두 신고 있더라.”

“옷도 입고 있었잖아.” “머리가 빨갛고 이상한 녀석이었어.”

“어라, 어라, 마타사부로가 내 책상 위에 돌맹이 놓고 갔다.” 2학년생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곳을 보니 그 아이 책상 위에 지저분한 돌맹이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 봐! 저 유리 창문도 깨졌어.”

“아니야, 저건 방학 전에 요시가 돌맹이 던진 거잖아.” “아냐, 아니라구.”하고 있는 참에 이젠 또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이 현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반짝반짝 빛나는 호각을 오른손에 들고 아이들을 모이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바로 뒤에서 조금 전의 그 빨간 머리의 아이가 마치 부처님의 옷시중이라도 드는 것처럼 점잔을 빼며 하얀 모자를 쓰고 선생님을 따라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조용해 졌습니다. 겨우 이치로가 “선생님 안녕하세요?”하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다들 따라서 “선생님 안녕하세요?”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안녕? 다들 건강하죠? 그럼 줄을 서요.” 선생님은 호각을 뿜 하고 불었습니다. 그 소리는 계곡 건너편 산에 울리고 다시 빼익 하며 낮은 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방학 전과 똑같다고 모두들 생각하며 6학년은 한 명, 5학년 일곱 명, 4학년 여섯 명, 3학년 열두 명이 한줄 씩 길게 늘어섰습니다.

2학년 여덟 명과 1학년 네 명도 앞으로 나란히를 해서 줄을 섰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이상한 아이는 뭐가 그리 신기하고 재미있는지 어금니로 비스듬히 혀를 씹는 듯하면서 유심히 아이들을 바라보며 선생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타카다군, 이쪽으로 들어가세요.”하며 그 아이를 4학년 줄 쪽으로 데려가서 카스케와 키를 비교하고는 카스케와 그 뒤의 키요 사이에 세웠습니다. 다들 뒤를 돌아 열심히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현관 앞으로 가서 “앞으로 나란히.”하고 구령을 불었습니다.

모두들 다시 한 번 앞으로 나란히를 하면서 줄을 잘 섰지만 사실은 그 이상한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기저기서 그 쪽을 돌아보기도 하고 걸눈질로 힐끔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앞으로 나란히 같은 건 제대로 아는 모양이어서 태연히 양팔을 앞으로 내밀고 손가락 끝을 카스케의 등에 닿을락 말락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스케는 무언가 등이 가려운 건지 간지러운 건지 땀지려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선생님이 다시 구령을 불었습니다.

“1학년부터 차례로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1학년이 걷기 시작했고 곧이어 2

학년, 3학년도 걷기 시작하여 모두가 서 있는 앞을 한 바퀴 돌아 오른쪽의 신발장이 있는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4학년이 걷기 시작하자 아까 그 아이도 카스케의 뒤를 따라 잔뜩 뽐내며 걸어갔습니다. 앞에서 걷는 아이들은 가끔씩 뒤를 돌아보았고, 뒤의 아이들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이윽고 모두들 신발을 신발장에 넣고 교실에 들어가, 밖에서 줄을 섰을 때와 마찬가지로 학년별로 한 줄씩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 아이도 점잔을 빼며 카스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어어, 내 책상이 바뀌었네.”

“어어, 내 책상에 돌맹이가 들어 있어.”

“킷코, 킷코, 너 통신부 갖고 왔어? 난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나봐.”

“야, 사노. 연필 좀 빌려줘, 연필 좀 빌려주라.”

“야아, 남의 잡기장을 가져가서는.”

그 때 선생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들 떠들어 대면서도 어쨌든 일어섰고, 이치로가 맨 뒤에서 “경례.”했습니다.

모두 경례를 하는 동안 약간 조용해 졌지만 금세 또 웅성웅성 떠들썩해졌습니다.

“조용히,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췌, 에츠지. 조용히 해. 카스케, 요시코. 야아.” 이치로가 제일 뒤에서 지나치게 떠드는 아이들을 한사람씩 야단쳤습니다.

다들 조용해 졌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긴 여름방학동안 즐거웠죠? 다들 아침부터 해엄을 치고, 숲 속에서 독수리도 못 당할 만큼 큰소리로 고함도 치고, 또 형들이 풀베기 하러 갈 때 따라서 높은 들판까지 올라가기도 했죠? 하지만 방학은 어제로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2학기이고, 가을입니다. 예부터 가을은 몸과 마음이 다 긴장하여 공부가 제일 잘 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다시 다같이 열심히 공부합시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의 친구가 한명 늘었습니다. 그 친구는 거기 앉아 있는 타카다군입니다. 아버지가 이번에 회사 일로 높은 들 초입에 오시게 되었거든요. 타카다군은 지금까지 훗카이도에 있는 학교를 다녔지만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었으니, 다들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나 밤을 주우러 가거나 뉘시를 하러 갈 때도 타카다군을 함께 데리고 다녀야 합니다. 알겠죠? 알아들은 사람은 손을 들어 보세요.”

다들 서둘러 손을 들었습니다. 그 타카다라는 아이도 손을 번쩍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조금 웃었지만 곧 “잘 알겠죠? 좋아요.”하고 말했기 때문에 다들 불이 꺼지듯 일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카스케가 곧 “선생님!”하며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네.”하고 선생님은 카스케를 지명했습니다.

“타카다군의 이름은 뭐예요?” “타카다 사부로군입니다.”

“와아, 바로 그거야. 역시 마타사부로잖아.” 카스케가 손뼉을 치며 곁상에 앉은 채 춤을 추는 시늉을 했기 때문에 큰 아이들은 와 하고 웃었지만 3학년보다 아래

학년 아이들은 어쩐지 좀 무섭다는 듯 조용해져서 사부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성적표와 숙제를 가져오기로 했죠? 가져온 사람들은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내가 지금 걷으러 갈 테니.”

다들 부지런히 가방을 열고 보자기를 펼쳐 성적표와 숙제장을 책상 위에 꺼내 놓았습니다. 선생님은 1학년 쪽부터 순서대로 그것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실 뒤쪽에 어느 샌가 웬 어른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험령한 흰색 삼베옷을 입고 건고 윤기 나는 손수건을 넥타이 대신 목에 감고는, 하얀 부채를 손에 들고 슬쩍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약간 웃는 얼굴로 모두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점차 조용해지더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사람을 별로 개의치 않고 차례로 성적표를 걷어 사부로의 자리까지 갔는데 사부로도 성적표도 숙제장도 없는 대신에 주먹을 쥔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말없이 사부로를 지나쳐서 아이들 것을 전부 걷고, 그것을 두 손으로 간추리면서 다시 교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다음 토요일까지 숙제장을 채점해서 돌려 줄 테니 오늘 안 가져온 사람은 내일까지 잊지 말고 꼭 가져오세요. 에츠지군과 코지군, 그리고 료사쿠군이죠?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내일부터는 정상수업 준비를 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5학년, 6학년은 선생님과 함께 교실 청소를 합시다. 그럼 이만.”

이치로가 “일어서.”하고 외치자 다들 일어섰습니다. 뒤의 어른도 부채를 밑으로 내리고 일어섰습니다.

“경례.” 선생님과 학생들도 절을 했습니다. 뒤의 어른도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어린 학생들은 한꺼번에 교실에서 뛰쳐나갔지만 4학년 아이들은 아직 머뭇머뭇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부로도 좀 전의 험령한 흰옷을 입은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선생님과 교단에서 내려와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아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어른은 공손히 선생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금방 아이들과 친해 질 겁니다.” 선생님이 답례를 하며 말했습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절을 하더니 사부로에게 눈짓을 하고 먼저 현관을 돌아 밖으로 나가서 기다렸고 사부로도 다들 보고 있는 가운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잠자코 계단을 내려가 그 어른을 따라가더니, 운동장을 가로질러 강 아래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운동장을 나설 때 그 아이는 이쪽을 돌아보며 잠깐 학교와 아이들이 있는 쪽을 노려보는 듯하다가 금세 성큼성큼 흰옷의 어른을 쫓아 걸어갔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타카다군의 아버지예요?” 이치로가 빗자루를 든 채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맞아요.”

“무슨 일로 온건가요?”

“높은 들 초입에서 물리브텐이라는 광석이 나기 때문에 그걸 파내기 위해서라더군요.”

“어디 근방인데요?”

“나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보통 말을 끌고 가는 길에서 조금 강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곳인가 봐요.”

“물리브텐이 뭐하는 거예요?” “그것은 철과 섞거나 약을 만들거나 한다고 해요.”

“그러면 마타사부로도 파는 거예요?” 카스케가 말했습니다.

“마타사부로가 아니야. 타카다 사부로라니까.” 사타로가 말했습니다.

“마타사부로야. 마타사부로라구.” 카스케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주장했습니다.

“카스케 너도 남았으니까 청소 좀 해.” 이치로가 말했습니다.

“우앗, 싫어. 오늘은 5학년이랑 6학년이잖아.” 카스케는 서둘러 교실을 빠져나가 도망쳐버렸습니다.

다시 바람이 불어와 창문이 덜컹덜컹 울리고 걸레를 담은 양동이 속에도 검은색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9월 2일]

이튿날 이치로는 그 이상한 아이가 오늘부터 정말로 학교에 와서 책을 읽을지 어떨지 빨리 보고 싶어서 평소보다 일찍 카스케를 부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카스케는 이치로보다 더 급했는지 일찌감치 밥을 먹고 책보자기를 들고 집 앞에 나와 이치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간에 이런저런 그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학교에 왔습니다. 운동장에는 이미 저학년 아이들이 벌써 일곱 여덟 명이나 모여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아이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또 어제처럼 교실에 들어가 있나 싶어서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교실 안은 조용하니 아무도 없었고 칠판 위에는 어제 청소 때 걸레로 닦은 자리가 말라서 어렴풋이 하얀 얼룩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 녀석은 아직 안 왔네.” 이치로가 말했습니다.

“응.” 카스케도 대답하며 그 곳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이치로는 철봉 아래로 가서 작은 물고기처럼 뛰어 오르더니 무리해서 철봉 위로 기어 올라가 양손을 점점 좁혀 오른쪽 기둥에 가서 그 위에 걸터앉아 어제 마타사부로가 갔던 방향을 유심히 내려다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울물이 그 쪽으로 반짝반짝 빛나며 흘러가고, 그 아래쪽의 산꼭대기에서는 바람이 부는지 가끔씩 역새가 하얗게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카스케 역시 그 기둥 아래에서 열심히 그 쪽을 보며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그다지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마타사부로가 그 아래쪽 길에서 회색가방을 오른손에 들고 뛰듯이 나타난 것입니다.

“왔다.” 이치로가 무심결에 뒤에 있는 카스케에게 소리치려는데 어느 샌가 마타사부로가 등을 빙글 돌아 성큼성큼 정문으로 들어와서는 “안녕.”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둘 다 동시에 그 쪽을 보았지만 인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선생님에게서는 항상 “안녕하세요?”라는 식으로 인사말을 배우고는 있었지만 자기들끼리 “안녕.” 따위는 해 본적이 없는데 마타사부로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이치로와 카스케는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너무 힘찬 목소리에 주눅이 들어 이치로도 카스케도 “안녕.”하고 말하는 대신 입 속에서 웅얼웅얼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타사부로만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두 세 걸음 더 앞으로 나가더니 잠자코 서서 그 새까만 눈으로 운동장을 한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누구 같이 놀 사람 없나 하고 찾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들 흘깃흘깃 마타사부로 쪽을 보고는 있지만, 멍뭉뭉뭉하거나 바쁘다는 듯 숨바꼭질을 하면서 마타사부로 쪽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마타사부로만은 약간 어색한 듯이 거기에 우뚝 서 있다가 운동장을 한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이 운동장은 몇 자나 될까 하는 듯 정문에서 현관까지 큰 걸음으로 걸음 수를 세어 가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치로는 서둘러 철봉에서 뛰어내려 카스케와 나란히 숨을 멈추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이 마타사부로만은 건너편 현관 앞까지 가서는 이쪽을 향해 얼마동안 암산이라도 하는 것처럼 가웃하며 서 있었습니다.

모두 여전히 흘깃거리며 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타사부로만은 멍쩍어 하며 양손을 뒤에서 맞잡고 교무실 앞을 지나 건너편 강둑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바람이 휘익 불어와 둑 위의 풀은 넘실넘실 물결치고, 운동장 한가운데 흑면지가 일었고 그것이 현관 앞까지 가서 빙글빙글 돌아 조그만 회오리바람이 되어서, 누런 면지가 병을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으로 지붕보다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카스케가 갑자기 크게 외쳤습니다. “그래, 저 녀석은 역시 마타사부로야. 저 녀석이 뭔가 했다하면 꼭 바람이 불잖아.” “응.” 이치로는 웬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자코 그 쪽을 보았습니다. 마타사부로만은 그런 것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둑이 있는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 때 선생님이 언제나처럼 호각을 들고 현관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안녕.” 선생님은 얼핏 운동장을 둘러보고 나서 “자, 줄을 서세요.”하면서 휘리릭 호각을 불었습니다.

다들 모여서 어제처럼 똑바로 줄을 섰습니다. 마타사부로도 어제 정해 준 자리에 제대로 섰습니다. 선생님은 해가 정면에서 비치는 탓에 약간 눈이 부신 듯 해하며 계속 구령을 불었고, 마침내 모두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례가 끝나자 선생님은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준비물은 챙겨왔죠? 1학년과 2학년은 서예글씨본과 먹과 종이를 꺼내고, 3학년과 4학년들은 계산장과 잠기장, 연필을, 5학년, 6학년은 국어책을 꺼내세요.”

그러자 여기저기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타사부로의 바로 옆에 앉

아있는 4학년 책상의 사타로가 갑자기 손을 뻗어 3학년인 카요의 연필을 슬쩍 집어 가 버린 것입니다. 카요는 사타로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러자 카요가 “오빠가 연필을 가져가버리면 어떡하라고?”하며 도로 빼앗으려 하였고 사타로는 “이건 내 거란 말이야.”하면서 연필을 품에 넣더니, 마치 중국 사람들이 절을 할 때처럼 양손을 소매 속에 넣고는 책상에 가슴을 바짝 붙였습니다. 그러자 카요는 일어나서 다가가 “오빠, 오빠 연필은 어제 외양간에서 잃어버렸잖아. 돌려줘.”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빼앗으려 하였지만 사타로는 마치 책상에 찰싹 달라붙은 커다란 개의 화석처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카요는 선 채로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마타사부로도 국어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난처하다는 듯이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카요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자 마타사부로도 잠자코 오른손에 쥐고 있던 반쯤 쓴 연필을 사타로 앞의 책상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타로는 갑자기 힘이 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주는 거야?”하고 마타사부로에게 물었습니다. 마타사부로도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결심했다는 듯 “응.”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타로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품안의 연필을 카요의 조그맣고 빨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저 쪽에서 1학년 아이들의 벼루에 물을 따라주고 있었고 카스케는 마타사부로의 앞자리여서 몰랐지만 이치로는 이것을 제일 뒷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정말이지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이를 부드득 부딪쳤습니다.

“그러면 3학년들은 방학 전에 배운 뺄셈을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이것을 계산해 보세요.” 선생님은 칠판에 “25-12”라고 썼습니다. 3학년 아이들은 모두들 그것을 열심히 잡기장에 옮겨 썼습니다. 카요도 머리를 잡기장에 붙이듯이 하고 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4학년 학생은 이걸 푸세요.”하며 “17×4”라고 썼습니다. 4학년인 사타로를 비롯하여 요시조, 코스케도 다들 그것을 옮겨 썼습니다. “5학년은 읽기책의 6쪽의 2과를 펼치고 소리를 내지 말고 읽을 수 있는대로 읽어 보세요. 모르는 글자는 잡기장에 옮겨 쓰는 거예요.” 5학년들도 모두 선생님 말씀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치로군도 읽기책의 6쪽을 살펴보면서 모르는 글자는 따로 써 놓도록 하세요.”

말이 끝나자 선생님은 교단에서 내려와 1학년과 2학년의 붓글씨를 한 사람씩 검사하고 다녔습니다. 마타사부로도 두 손으로 책을 잘 잡고 선생님이 말한 페이지를 숨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잡기장에는 한 글자도 옮겨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르는 글자가 하나도 없어서인지 아니면 단 한 자루뿐이던 연필을 사타로에게 쥐 버렸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은 교단으로 돌아와 3학년과 4학년 산수 문제를 풀어 보이고 다시 새 문제를 내고 나서, 이번에는 5학년 학생들이 잡기장에 써놓은 모르는 글자를 칠판에 옮기고 음과 뜻을 썼습니다. 그러더니 “그러면 카스케군, 여기를 읽어보세

요.”했습니다. 카스케는 두세 번 더듬거리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읽었습니다. 마타사부로도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책을 들고 잠자코 듣고 있다가 열 줄 정도 지나자 “거기까지.”하고 이번에는 선생님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일단락이 되자 선생님은 마침내 모든 학생들에게 도구를 치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럼 여기까지.”하고 말하고 교단에 섰고, 이치로가 뒤에서 “열중 쉬어.”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끝나자 모두 차례로 밖으로 나가서, 이번에는 줄을 서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놀았습니다.

2교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음악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만도린을 들고 나오셨고, 모두 지금까지 배운 노래를 만도린에 맞춰 다섯 곡이나 불렀습니다.

마타사부로도 다 아는 노래여서 함께 불렀습니다. 그래서인지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3교시에는 3학년과 4학년이 국어, 5학년과 6학년은 수학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칠판에 문제를 내서 5학년과 6학년에게 풀게 하였습니다. 잠시 후 이치로는 답을 다 써버리고 마타사부로를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타사부로는 어디 서 났는지 조그만 석탄조각을 잡기장에 북북 그어가며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9월 4일, 일요일]

이튿날 아침 하늘은 맑게 개고 강물은 찰랑찰랑 울렸습니다. 이치로는 도중에 카스케와 사타로, 에츠지를 불러 사부로네 집 쪽으로 같이 갔습니다. 학교보다 조금 아래쪽에서 개울을 건너고, 개울가의 버들가지를 모두들 하나씩 꺾어 푸른 껍질을 줄줄 벗겨서 채찍을 만들어 손에 들고 휘휘 휘두르며 올라갔습니다. 다들 서둘러 올라가면서 숨을 헉헉거렸습니다.

“마타사부로는 정말 그 샘물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까?”

“기다린다니까. 마타사부로는 거짓말 안 해.”

“아아, 더워. 바람이 불면 좋은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잖아.”

“마타사부로는 불게 했나봐.”

“어쩐지 해님이 멍해진 것 같아.” 하늘에 한 조각 하얀 구름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아이들의 집이 저 아래쪽으로 까마득하게 보이고 이치로네 헛간 지붕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숲 속으로 이어진 길은 얼마동안 질퍽거렸고 어두워서 주변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모두들 약속한 샘물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저 쪽에서 “어이, 다들 왔어?”하고 사부로가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들 서둘러 달려 올라갔습니다. 건너편 모퉁이에서 마타사부로는 조그만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세 사람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겨우 사부로의 앞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다들 숨이 가빠서 금방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

습니다. 카스케는 너무 답답해서 하늘에 대고 “허억”하며 고함을 쳐 빨리 숨을 토해 내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사부로로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한참 기다렸어. 게다가 오늘은 비가 올지도 모른대.”

“그럼 얼른 가야 돼. 나는 우선 물 좀 마셔야겠어.”

세 사람은 땀을 흠치고 엉거주춤 앉아서 새하얀 바위에서 뽕뽕 솟아나는 차가운 물을 몇 번이나 손으로 떠서 마셨습니다.

“우리 집은 여기서 급방이야. 바로 저 골짜기 위쪽이거든. 다같이 돌아올 때 들르자.”

“응, 우선 벌판부터 가야 해.”

다들 다시 걷기 시작할 때 샘물이 무언가를 알려려는 듯 쪼고 울고 옆에 있는 나무들도 어쩐지 철렁하고 울린 것 같았습니다. 네 사람은 숲 기슭 덩불사이를 걷기도 하고 바위 그늘 조금 무너진 곳을 몇 번씩이나 지나 어느새 높은 들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모두들 거기 멈춰 서서 자기들이 지나온 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밝게 혹은 어둡게 몇 겹으로 겹쳐진 수많은 언덕 너머로 강을 따라 진짜 벌판이 어렴풋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라, 저거 강이잖아.”

“아스카 메이진님 허리띠 같다.” 마타사부로가 말했습니다.

“뭐 같다고?” 이치로가 물었습니다.

“아스카 메이진님의 허리띠 같아.” “너는 신의 허리띠도 봤단 말이야?” “나 홋카이도에서 봤거든.”

다들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높은 들 초입에는 깨끗하게 벤 풀 사이로 커다란 밤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의 뿌리 쪽은 새까맣게 그을려 커다란 동굴처럼 되어 있고, 가지에는 낡은 새끼줄이니 헐어빠진 짚신 따위가 걸려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사람들이 풀을 베고 있어. 그리고 말이 있는 곳도 있어.” 이치로는 말하며 풀 사이의 외길을 성큼 성큼 앞장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사부로로는 그 뒤를 따라 “여긴 꿈이 없으니까 말을 놓아 먹여도 되겠다.”하며 걸어갔습니다. 얼마 동안 걸어가 보니 커다란 졸참나무 아래에 새끼줄로 엮은 망태가 내던져져 있고 여기저기 풀 다발들이 잔뜩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등에 풀을 짊어진 말 두 필이 이치로를 보고 코를 푸릉푸릉 울렸습니다. “형, 어디야? 형 나 왔어.” 이치로는 땀을 닦아가며 소리쳤습니다. “어이, 거기 있어. 지금 갈 테니까.” 저 건너편 구덩이에서 이치로 형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햇빛이 확 밝아지고 형이 저쪽 풀 속에서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잘 왔다. 친구들도 데려온 거야? 잘 왔어. 갈 때 말도 데려가. 오늘은 점심때부터 흐려질 게 틀림없으니까. 나는 좀 더 풀을 벨 거니까, 너희들 놀러면 저 독방 안으로 들어가. 아직 목장 말이 한 스물 필 있으니까.”

형은 저쪽으로 가려다가 뒤돌아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독방에서 나오면 안 돼. 길 잃어버리면 큰일이니까. 점심때 다시 올게.”

“응, 독방 안에 있을게.”

그리고 나서 이치로의 형은 가버렸습니다. 하늘엔 얇은 구름이 잔뜩 떠 있고, 태양은 하얀 거울처럼 되어 구름과 반대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아직 베지 않은 풀 위에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치로가 앞장서서 좁은 길을 똑바로 나갔더니 얼마 안 가서 제방이 나왔습니다. 제방 한 가운데가 끊어져 있고 두 개의 통나무가 가로질러 매여 있었습니다. 코스케가 그 밑으로 기어 나가려 하자 카스케가 “이런 건 빼면 되잖아.”하면서 한쪽 끝을 뽑아서 밑으로 내려놓았기 때문에 다들 그걸 뛰어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너편 약간 높은 곳에 번쩍번쩍 빛나는 갈색 말 일곱 여덟 마리가 모여서 한가롭게 꼬리를 칠씩칠씩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모두 한 마리에 천 엔도 더 나간대. 내년부터 다들 경마에 나갈 거래.” 이치로가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말들은 모두 지금까지 외로워서 혼났다는 듯이 이치로와 아이들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긴 얼굴을 쭉 펴고는 뭔가 달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아, 소금을 달라는 거야.” 다들 말하며 손을 내밀어 말들이 핏도록 해주었지만 사부로만은 말이 낯선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버렸습니다.

“어라, 마타사부로는 말이 무서운가보네.”하고 에츠지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부로는 “무섭지 않아.”하며 얼른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마의 코앞으로 뻗었지만 말이 고개를 빼고 혀를 쭉 내밀자 얼굴색이 싹 변해서 재빨리 손을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와아, 마타사부로는 말을 무서워하네.” 에츠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부로는 얼굴이 완전히 새빨개져서 잠시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그럼 모두 다같이 경마할래?”하고 말했습니다.

경마란 게 어떻게 하는 걸까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사부로는 “나는 경마 몇 번이나 봤어. 그렇지만 이 말들은 안장이 없으니까 못 타겠다. 모두 한 마리씩 말을 몰아가서 맨 먼저 저기, 저 커다란 나무 있는 데까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거 재밌겠다.” 카스케가 말했습니다.

“혼나려구, 말치는 사람한테 들켰다가.”

“팬찮아. 경마에 나갈 말이라면 연습을 해야 돼.” 사부로가 말했습니다.

“좋아, 나는 이 말 할래.” “나는 이 말.” “그러면 나는 이 말이 좋겠군.”

다들 버드나무 가지나 억새를 뽑아 휘이 하며 말을 가볍게 쳤습니다. 그러나 말들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거나, 목을 길게 뽑아 저쪽 경치나 더 잘 봐야지 하는 식이었습니다.

이치로가 양손을 딱 하고 마주 치며 “이라.”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일곱 마리 모두 갈기를 세우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잘한다.” 카스케는 뛰어 오르듯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리 봐도 경마는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말들이 얼굴을 나란히 하고 달렸고, 그다지 경쟁하듯이 달리는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들 흥이 나서 “이라 이라.”해 가며 열심히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말은 조금 가다가 멈추려 했습니다. 다들 조금 숨이 가빠 헉헉했지만 참고서 다시 말을 쫓았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말은 아까 쉬고 있던 약간 높은 곳을 한바퀴 돌아, 좀 전에 네 사람이 들어왔던 독이 무너진 곳으로 갔습니다.

“어엿, 말이 나간다, 나간다. 잡아, 잡아.”

이치로는 새파랗게 질려 고함을 쳤습니다. 정말로 말은 독 밖으로 나갈 모양이었습니다. 확확 달려서 아까 그 통나무를 넘을 참이었습니다. 이치로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며 “췌 췌 췌.”하며 정신없이 달려가 겨우 거기 도달해서는 마치 꼬꾸라지듯이 하면서 팔을 뻗었지만 이미 두 마리는 밖으로 나간 뒤였습니다.

“얼른 와서 잡아, 얼른 오라니까.” 이치로는 숨이 끊어질 듯 외치며 통나무를 원래대로 놓았습니다. 세 사람이 달려가서 서둘러 통나무 밑으로 밖에 나가니, 말 두 마리가 더는 달릴 생각이 없는지 독 밖에 서서 풀을 입으로 잡아당겨 뽑고 있었습니다. “살살 가서 잡아야 해. 살살.”하면서 이치로는 그 중 한 마리의 재갈, 명찰이 붙어 있는 부분을 힘껏 잡았습니다. 카스케와 사부로가 나머지 한 마리를 잡으려고 다가가니 말은 깜짝 놀란 듯이 제방을 따라 단번에 남쪽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형! 말이 도망간다. 말이 도망간다고. 형! 말이 도망간다니까!”하고 이치로가 뒤에서 열심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부로와 카스케는 죽을힘을 다해 말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말은 이번엔 정말로 도망칠 생각인 모양입니다. 정말로 제 키만큼이나 되는 풀을 헤치고 높아지다가 낮아지다가 하면서 어디까지도 달려갔습니다. 카스케는 다리에 쥐가 나서 어딜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주위가 새파랗게 되어 빙글빙글 돌더니 마침내 카스케는 깊은 풀 속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말의 붉은 갈기와 뒤를 쫓고 있는 사부로의 흰 모자가 마지막으로 힐끗 보였습니다.

카스케는 벌떡 누워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새하얗게 빛나면서 빙글빙글 돌고 옅은 회색 구름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쨍쨍 울리고 있었습니다.

카스케는 가까스로 일어나 쉼쉼 숨을 몰아쉬며 말이 사라진 방향으로 걸기 시작했습니다. 풀 위에는 말과 사부로가 방금 지나간 자국인 듯 희미하게 길이 나 있었습니다. 카스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흥, 팬잖아. 말은 지금쯤 겁이 나서 어딘가에 우두커니 서 있을 거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카스케는 열심히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길처럼 보이던 것이 백 걸음도 채 가기 전에 뚜껑꽃이냐 멋지게 키가 큰 엉덩퀴들 속에서 두세 갈래로 갈라져 버려 뭐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카스케는 어이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어이 하고 어디선가 사부로가 고함을 치는 듯 했습니다. 마음을 굳혀 가운데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도 때때로 없어지거나 말이 가지 않을 듯한 가파른 곳을 가로질러 지나가거나 했습니다.

하늘은 몹시도 어둡게 내려앉고 주변은 어렴풋이 흐려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풀을 건너기 시작하고 이미 구름과 안개가 토막토막 눈앞을 휩쓸 지나갔습니다.

‘어어, 이거 큰일 났네. 나쁜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더니.’하고 카스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갑자기 말이 지나간 자국이 풀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카스케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풀잎은 몸을 비틀며 사각사각 소리를 내기도 하고 살랑살랑 울리기도 했습니다. 안개가 굉장히 짙어져서 옷이 완전히 축축해졌습니다. 카스케는 목이 터져라 고함을 쳤습니다.

“이치로! 이치로! 이리로 와.”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칠판에서 떨어지는 하얀 백묵 가루 같은 어둡고 차가운 안개 방울이 온통 춤을 추는 듯 내려오고, 주변이 갑자기 고요해져 무서웠습니다. 풀잎에서는 이미 빗방울 소리가 푹푹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스케는 빨리 이치로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길은 아까 온 길과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엉덩위가 너무 많고 바닥에 아까는 없던 바위들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는 커다란 골짜기가 느닷없이 눈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참억새가 와삭와삭 울고, 길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골짜기 같은 안개 속에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참억새 이삭이 무수한 손을 힘껏 뻗어 분주히 흔들어대며 “아, 서쪽, 아, 동쪽, 아, 서쪽, 아, 남쪽, 아, 서쪽.”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카스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조그만 검은 길이 풀숲 속에서 돌연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말발굽 자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카스케는 정신없이 짙막한 웃음소리를 내고는 그 길을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길도 미덥지 못했습니다. 길의 폭이 한 15센티 정도인가 싶다가 한 1미터로 늘어나기도 하고, 게다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꼭대기가 불에 탄 커다란 밤나무 잎까지 왔을 때는 슬그머니 몇 갈래로 길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거기는 아마도 야생마들의 집합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안개 속에서 둥근 광장처럼 보였습니다. 카스케는 풀이 죽어 검은 길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모를 풀 이삭이 소리 없이 흔들리고 좀 강한 바람이 불어오자 어디서 누군가 “자, 왔다.”하며 신호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풀들이 한꺼번에 몸을 숙여 피었습니다. 하늘이 빛나며 퐁퐁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의 안개 속에 집 모양의 커다란 검은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카스케는 잠시 동안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집 같아서 멍청멍청 다가가 보니 그것은 차갑고 커다란 검은 바위였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하얗게 흔들리고 풀들이 짹 하고 한꺼번에 이슬을 털어냈습니다. ‘잘못해서 들판 저쪽으로 내려갔다가는 마타사부로도 나도 이젠 죽은 목숨이다.’하며 카스케는 반은 속으로, 반은 중얼거리듯이 말했습니다.

“이치로, 이치로, 거기 있어? 이치로.”

다시 밝아졌습니다. 풀들은 한꺼번에 기쁨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사토 마을의 전기공 꼬마는 야마 오토코에게 손발을 묶여 버렸다더라.”고 언젠가 누가 해 준 말이 확실히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검은 길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변이 아주 잠깐 동안 쥐죽은 듯 조용해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늘이 깃발처럼 펄럭펄럭 빛나며 날리고 불꽃이 파닥파닥 피어올랐습니다. 카스케는 마침내 풀 속에 쓰러져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 어딘가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 같았습니다.

홀연히 마타사부로는 바로 눈앞에서 발을 뻗고 앉아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회색 윗도리 위에는 어느 샌가 유리로 된 망토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유리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마타사부로의 어깨에는 밤나무 그림자가 파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타사부로의 그림자도 역시 파랗게 풀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휘익휘익 불고 있었습니다. 그저 조그만 입술을 늙름하게 짹 다물고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타사부로는 훌쩍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유리망토가 반짝 반짝 빛났습니다. 문득 카스케는 눈을 떴습니다. 회색안개가 빠른 속도로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바로 눈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눈은, 카스케를 두려워하는 듯 옆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카스케는 뛰어올라 말의 명찰을 붙잡았습니다. 그 뒤에서 사부로는 핏기 없는 입술을 짹 물고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카스케는 덜덜 떨었습니다.

“어이.” 안개 속에서 이치로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둥도 우르릉 울고 있습니다. “어이, 카스케. 어디 있어? 카스케!” 이치로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카스케는 기뻐 솟구쳐 올랐습니다.

“어이, 있어! 있어! 이치로, 어이!”

이치로의 형과 이치로가 갑자기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카스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찾았잖아. 큰일 날 뻔했어. 완전히 다 져버렸네, 그래.” 이치로의 형은 익숙한 숨씨로 말의 머리를 안더니 가지고 온 재갈을 재빨리 말의 입에 물렸습니다. “자, 이제 됐어.” “마타사부로 놀랐겠다.” 이치로가 사부로에게 말했습니다. 사부로는 잠자코 역시 입은 짹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이치로의 형을 따라 완만한 비탈길을 두 개 정도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검고 큰 길을 한동안 걸었습니다.

번개가 두 번쫘 회쑤영게 번쩍였습니다. 풀을 태우는 냄새가 나고, 안개 속에서 연기가 가볍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치로의 형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있어요. 다들 있대구요.”

할아버지는 안개 속에 서서 “아아, 걱정했다. 걱정했어. 정말 다행이야. 카스케, 추웠겠구나. 어서 들어오너라.”하고 말했습니다. 카스케도 이치로와 마찬가지로 이 할아버지의 먼 손자뻘이었습니다.

반쫘 타 버린 커다란 밤나무의 뿌리 쪽에 풀로 만든 조그만 오두막이 있고, 빨간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치로의 형은 말을 졸참나무에 붙들어 댔습니다. 말도 히잉 하고 울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얼마나 울었을까. 이 녀석은 금산 파는 집 애구만. 자, 어서, 어서들 떡들 먹어. 먹어라, 응? 지금 이쪽 것도 구울 테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갔던 게냐?”

“사사바리네 내리막길까지요.” 이치로의 형이 말했습니다.

“큰일 날 뻔 했다, 큰일 날 뻔 했어. 저쪽으로 내려 갔다하면 말이고 사람이고 그 길로 끝이야. 자, 카스케 떡 먹거라. 너도 먹고. 자아, 어서 너도 먹고.”

“할아버지, 말 놓고 올게요.” 이치로의 형이 말했습니다.

“어영, 마부 오면 또 시끄러울 거야. 그래도 조금 기다려라. 금방 날이 꺾 테니까. 아아, 걱정했다. 나도 호랑이산 아래까지 가서 보고 왔단다. 허허, 정말 다행이다. 비도 그치고.”

“오늘 아침엔 그리도 날씨가 좋더니.”

“응, 또 좋아질 거야. 어라, 빗물이 새네.” 이치로의 형이 나갔습니다. 천장이 사각사각 소리를 냅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그것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밝아졌어요. 비도 그치구요.”

“으응, 그래. 자, 다들 모여 불들 쪼고 있으렴. 나는 다시 풀을 좀 벨 테니까.” 안개가 순식간에 걷혔습니다. 햇빛이 반짝 흘러들었습니다. 그 태양은 약간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몇 조각의 촛농 같은 안개는 채 달아나지 못해 할 수 없다는 듯 빛났습니다.

풀에서는 물방울이 반짝반짝 떨어지고, 잎도 줄기도 꽃도 모두 다 올해의 마지막 햇빛을 흠뻑 받고 있었습니다.

멀리 서쪽의 푸른 들판은 지금 막 울다 그친 것처럼 눈부시게 웃고, 건너편 밤나무는 파란 빛을 등 뒤에 두른 듯 합니다. 다들 지칠 대로 지쳐서 이치로를 따라 들판을 내려왔습니다. 웅달샘이 있는 데서 사부로네 여전히 입을 다문 채 모두와 헤어져 혼자서 아버지의 오두막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카스케가 말했습니다. “저 녀석은 역시 바람의 신이야. 바람신의 아들의 아들이라니까. 거기서 불이 등지를 튼 거야.” “그렇지 않아.” 이치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9월 6일]

이튿날은 아침나절엔 비가 내렸지만 2교시부터는 점점 날이 개서 3교시가 끝나고 10분 쉬는 시간에는 완전히 비가 그쳐 맑은 푸른 하늘이 비치고, 그 아래 새하얀 구름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산 속의 억새나 밤나무에 남아있는 구름은 수증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마치면 포도 따러 안 갈래?” 코스케가 카스케에게 살짝 물었습니다.

“갈께, 갈께. 마타사부로도 갈래?” 카스케가 말했습니다. 코스케는 “야아, 거긴 마타사부로한테는 안 가르쳐 줄 거야.”하고 말했지만 사부로로는 듣지 못하고 “갈께. 훗카이도에서도 갔었어. 우리 엄마는 술을 두 통이나 담그셨는걸.”했습니다.

“포도 따러 나도 데려가주지 않을래?” 2학년 쇼키치도 말했습니다.

“몰라. 그렇게 모두에게는 안 가르쳐 줄 거야. 내가 작년에 새로 발견한 데가 있단 말이야.”

다들 수업이 끝나기만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습니다. 5교시 수업이 모두 끝나자 이치로와 카스케, 사타로, 코스케, 에츠지 그리고 사부로까지 여섯이 강 상류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조금 가자 초가집이 한 채 보이고 그 앞에는 조그만 담배 밭이 있었습니다. 담배는 이미 아래쪽 밭을 따낸 뒤라서 푸른 줄기가 숲처럼 깔끔하게 늘어서 너무도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타사부로는 갑자기,

“뭐야, 이 밭은?” 하며 밭 하나를 뜯어서 이치로에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치로는 깜짝 놀라 “어엇, 마타사부로. 담배 밭을 따면 전매국한테 엄청 혼나. 어어, 마타사부로 어쩌서 딴 거야.”하고 얼굴빛이 어두워져서 말했습니다. 다들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어어, 전매국에서 이 밭 하나하나 다 세어서 장부에다 써 놓는데. 이제 난 몰라.”

“이제 난 몰라.”

“이제 난 몰라.” 모두들 입을 맞춘 듯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사부로로는 얼굴이 빨개져서 잠깐 동안 그 밭을 흔들며 뭔가 할말을 찾다가 “난 모르고 딴 거야.”하고 화가 난 것처럼 말했습니다.

다들 무섭다는 듯이 누군가 보고 있거나 않은지 건너편 집을 살폈습니다. 무럭무럭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담배 밭 건너편의 그 집은 조용하고 인기척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 집 1학년 코스케(小助)네 집이야.” 카스케가 슬쩍 위로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코스케는 처음부터 자기가 발견한 포도 덩굴에 사부로까지 다들 몰려온 것에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심술궂게 다시 한번 사부로에게 말했습니다.

“야아, 마타사부로, 아무리 모르고 했어도 큰일난거야. 얼른 원래대로 붙여 놔.” 마타사부로는 어쩔 줄 모르겠는 듯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그럼 그냥 여기다 두

고 가면 되지 뭐.”하며 아까 그 나무 밑에 잎을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이치로가 “얼른 가자.”하며 앞장을 서서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들 쫓아서 갔습니다. 코스케만은 아직도 남아서 “어어, 난 몰라. 어라, 마타사부로가 놔 둔 잎, 저기에 있네.”해 가며 떠들어 댔지만 다들 서둘러 가 버렸기 때문에 코스케도 할 수 없이 따라왔습니다.

억새풀 사이의 좁다란 길을 따라 산 쪽으로 조금 올라가니 남쪽에 우묵한 곳이 있었습니다. 밤나무가 여기저기 서 있소 아래쪽에는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울창한 덤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발견한 곳이니까 다들 너무 많이 따면 안돼.”하고 코스케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부로로는 “나는 밤을 딸래.”하면서 돌맹이를 주워 가지에 던졌습니다. 파란 밤송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마타사부로로는 그것을 나무토막으로 벗겨 아직은 하얀 밤알 두 개를 꺼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포도를 따습니다. 코스케가 다른 덤불로 가려고 밤나무 밑을 지날 때, 난데없이 위에서 한꺼번에 물방울이 두두둑 떨어져 코스케는 어깨, 등 할 것 없이 물에 빠진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코스케가 깜짝 놀라 입을 벌리고 위를 쳐다보니 어느새 나무 위에 마타사부로가 올라가 앉아 약간 웃는 얼굴로 자기도 소매 끝으로 얼굴을 닦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 마타사부로. 뭐 하는 거야?” 코스케는 원망스럽다는 듯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잖아?” 사부로로는 위에서 킁킁 웃으며 말했습니다. 코스케는 나무 밑에서 나와 다른 포도 덤불에서 다시 포도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코스케는 혼자서 들 수도 없을 만큼 포도를 따서 여기저기 모아 놓았고, 입술도 보라색으로 물들어 정말 커보였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자.” 이치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더 딸 거야.”하고 코스케가 말했습니다.

그 때 코스케는 다시 한번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차가운 물방울을 뒤집어썼습니다. 코스케가 깜짝 놀라 나무를 올려다보았지만, 이번엔 나무 위에 사부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무 건너편에서 사부로로의 쥐색 팔꿈치가 보이고 쿡쿡 웃는 소리도 들렸기 때문에 코스케는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이, 마타사부로. 또 사람한테 물을 뿌린 거야?”

“바람이 분거야.”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이, 마타사부로. 네가 거기서 나무를 흔든 거지?”

다들 또다시 와아 하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코스케는 화가 나서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사부로로의 얼굴을 노려보면서 “정말 마타사부로. 너 같은 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자 마타사부로로는

알밋게 웃었습니다. “아, 코스케군, 실례했네.” 코스케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너무 화가 나서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더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정말이지, 마타사부로. 너 같은 바람파워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구. 정말이지.” “미안해. 네가 하도 나한테 심술궂게 구니까.” 마타사부로는 눈을 깜빡거리며 멋쩍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스케의 마음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같은 소리를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마타사부로. 바람 같은 건 세상에 없어야 돼.” 그러자 마타사부로는 약간 재미있다는 듯 다시 쿡쿡 웃음을 터뜨리며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바람이 없으면 좋겠다니 무슨 말이야? 좋은 이유를 한번 차례로 말해봐. 어서.” 마타사부로는 선생님 같은 표정으로 손가락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코스케는 무슨 시험이라도 보는 것처럼 느껴져 몹시 약이 올랐지만 할 수 없이 잠깐 생각하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너 같은 건 심술쟁이잖아. 우산을 부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또?” 마타사부로는 재미있다는 듯 한 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부러뜨리고, 뒤집어 놓고.” “그리고 또 어떤데?” “집도 부수지.” “그리고 또 다음에는?” “불도 끄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엔? 그 다음엔 뭔데?” “모자도 날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엔? 그다음엔 또?” “삿갓도 날리지.” “그리고? 그리고 또?” “그리고, 어어, 전봇대 쓰러뜨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지붕도 날리고.” “하하하, 지붕은 집에 들어가잖아. 어때, 아직도 있어? 그리고 또?” “그러니까, 으음, 그러니까 남폿불도 끄고.” “아하하하, 램프는 불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결국 그제 전부야? 응? 어이, 그리고 또? 그리고?” 코스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대충 다 말을 해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른 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타사부로는 점점 더 재미있다는 듯이 손가락 하나를 세우고는 “그리고, 그리고? 응, 또?”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코스케는 얼굴이 빨개져서 한잔을 생각하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풍차도 부시고.” 그러자 마타사부로는 이번에는 날아갈 듯이 크게 웃었습니다. 모두들 웃었습니다. 웃고, 웃고 또 웃었습니다. 마타사부로는 겨우 웃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그것 봐. 마침내 풍차소리까지 해 버렸지? 풍차는 절대 바람을 나쁘게 생각 안 해. 물론 바람이 때때로 풍차를 망가뜨리는 일도 있겠지만 돌려 줄 때가 훨씬 더 많은 걸. 풍차라면 조금도 바람을 나쁘게 생각 안 한다니까. 게다가 우선 네가 아까부터 말하는 것들은 너무 웃겨. 줄곧 ‘으음’만 하고 있었잖아? 결국엔 풍차까지 끌어들이구. 아아, 너무 재밌어.” 마타사부로는 다시 한번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습니다. 코스케 역시 아까부터 너무나 당황해서 자기가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점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타사부로와 함께 웃음을 터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타사부로도 완전히 기분이 좋아져서 “코스케, 장난쳐서 미안해.”하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만 가자.” 하며 이치로가 마타사부로에게 포도를 다섯 송이 주었습니다. 마타사부로는 하얀 밤알을 모두에게 두 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이 아랫길까지 내려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9월 7일]

이튿날 아침에는 안개가 축축하게 내려 학교 뒷산도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교시 무렵부터 조금씩 개더니 얼마 가지 않아 하늘은 새파래지고, 태양이 쨍쨍 빛나는 한낮이 되어 3학년부터 그 아래 학년 수업이 마치고 나서는 마치 여름처럼 무더워졌습니다.

정오가 지나서는 선생님도 교단에서 자주 땀을 닦으셨고, 4학년의 글씨 쓰기수업이나 5, 6학년의 미술수업도 너무 더워서 하는 도중에 꾸벅꾸벅 졸 정도였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자 다들 곧장 강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카스케가 “마타사부로, 뭇 감으려 안 갈래?”하고 말했기 때문에 마타사부로도 따라갔습니다.

그 곳은 지난번에 간 높은 들보다는 약간 하류 쪽이었습니다. 오른쪽 방향에도 물줄기 하나가 섞여 들어와 강폭이 제법 넓었고 그 바로 아래에는 커다란 쥐엄나무들이 서 있는 둔덕이 있었습니다. “어이!” 먼저 와 있던 아이들이 알몸으로 두 손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치로와 아이들은 강변의 자귀나무 사이를 마치 경주라도 하듯 달리며 옷을 벗어젖히고는 풍덩풍덩 물에 뛰어들어 양발을 차례로 올려 탕탕 물을 치면서 비스듬히 늘어서서 건너편 강 둔덕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와 있던 아이들도 헤엄 쳐 따라갔습니다.

마타사부로도 옷을 벗고 다른 아이들의 뒤를 따라 헤엄치기 시작하더니 도중에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그러자 건너편 둔덕에 다다른 이치로가 머리카락을 바다표범처럼 하고 입술은 새파래져 덜덜 떨며 “마타사부로, 왜 웃은 거야?”하고 말했습니다. 마타사부로 역시 떨면서 물에서 나와 “물이 차다.”라고 했습니다.

“마타사부로, 왜 웃은 거냐고?” 이치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들 수영하는 게 이상해서. 왜 발로 물을 탕탕 치는 거야?”하며 또 웃었습니다.

“그래?”하고 이치로는 말했지만 좀 멧쩍었는지 “돌 찾기 안 할래?”하더니 하얏고 둥그란 돌을 주웠습니다. “하자, 하자.”아이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가 저 나무 위에서 떨어뜨릴게.”이치로는 말하면서 벼랑의 중간쯤에 있는 쥐엄나무 위로 쪼르르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자아, 떨어진다. 하나 둘 셋.”하면서 그 하얀 돌맹이를 풍덩 물에 떨어뜨렸습니다. 모두들 다투듯 둔덕에서 기꾸로 물에 뛰어들어 청백색의 해달들처럼 강바닥으로 잠수하더니 돌맹이를 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강바닥에 닿기도 전에 숨이 막혀 다시 떠올라 차례로 후우 하면서 공중에 입김을 내뿜었습니다.

마타사부로로는 잠자코 아이들이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모두가 떠오르고 나서 자기도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바닥까지 못 닿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들 와 하고 웃었습니다. 그 때 건너편 강둑의 자귀나무 언저리에 어른이 네 명, 옷통을 드러낸 채 그물을 들고서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치로는 나무 위에서 갑자기 소리를 낮춰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앗, 발파다. 모르는 척 하고 있어. 돌 찾기는 관두고 얼른 모두 하류 쪽으로 가.” 그래서 아이들은 가능한 한 그 쪽을 안 보는 척하며 다같이 하류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이치로는 나무 위에서 손을 이마에 대고 다시 한번 잘 살피고는 풍덩하며 머리부터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 밑으로 잠수해서 단번에 모두를 따라잡았습니다.

모두들 강 아래쪽 여울진 곳에 섰습니다. “모른 척하고 놀고들 있어. 다들.” 이치로가 말했습니다. 모두들 솟돌을 줄기도 하고 할미새를 쫓기도 하면서 마치 발파 같은 건 전혀 눈치 채지 못 한 척 했습니다.

그러자 건너편 강물의 깊은 곳 둔덕에서는 하류 쪽에서 갱부노릇을 하던 쇼스케가 잠깐 동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책상다리를 하고 모래 위에 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춤에서 담배쌈지를 꺼내더니 담뱃대를 물고 뽀뽀뽀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발파다. 발파야!” 모두 소리쳤고 이치로가 손을 저어 아이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쇼스케는 담뱃대의 불을 조용히 그 쪽으로 옮겨 붙였습니다. 뒤에 있던 한 사람이 얼른 물에 들어가 그물을 쳤습니다. 쇼스케는 아주 침착하게 일어나서 물에 한걸음 들어서거나 들고 있던 것을 재빨리 쥐엄나무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펑 하는 굉장한 소리가 나고 물이 출렁 솟아 오르더니 얼마동안 그 언저리가 쨍하고 울렸습니다. 맞은편에 있던 어른들은 모두 물에 들어갔습니다.

“자아, 떠내려 온다. 다 건져.” 이치로가 말했습니다. 금세 쇼스케는 옆으로 누워 떠내려 오는 새끼손가락 크기의 갈색 독중개를 건져 올렸고, 그 뒤에서는 카스케가 마치 오이를 베어 먹을 때 나는 것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20센티쯤 되는 붕어를 잡고서 얼굴이 새빨갳게 되어 기뻐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모두 물고기를 잡고서 와아와아 하며 좋아했습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이치로가 말했습니다. 그 때, 건너편 하얀 둔덕을 옷통을 드러내거나 셔츠만 입은 어른들 대 여섯 명이 달려왔습니다. 그 뒤로는 마치 영화에서처럼 그물 셔츠를 입은 사람 하나가 안장도 없는 말을 타고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모두들 발파소리를 듣고 구경 온 것이었습니다.

쇼스케는 잠깐 동안 팔짱을 끼고 다른 이들이 잡는 것을 보고 있다가 “많이 안 떠오르네.”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타사부로가 어느 샌가 쇼스케의 곁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치 정도 되는 붕어 두 마리를 “물고기 돌려줄게요.”라고 말하며 둔덕에 던지듯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쇼스케는 “뭐야, 이 녀석. 웃기는 놈이네.” 하며 마타사부로를 뻔히 쳐다보았습니다. 마타사부로는 말없이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쇼스케는 이상한 얼굴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와아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쇼스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상류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른들도 따라서 갔고, 그물 서츠를 입은 사람은 말을 타고 왔습니다. 코스케가 헤엄쳐 가서 사부로가 놓고 온 물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발파하러거든 송사리는 뿌려.” 카스케가 강 둔덕의 모래밭 위에서 깡충깡충 뛰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모두들 잡은 물고기를 돌로 두른 조그만 웅덩이 속에 넣어, 퇴살아나더라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해 놓고는 다시 상류 쪽 쥐엄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더워서 자귀나무도 마치 여름처럼 축 늘어져 있는 것 같고, 하늘도 바닥이 없는 소(沼)처럼 되었습니다.

그 때 누군가가 “앗, 웅덩이를 다 부순다!”하고 소리쳤습니다. 그곳을 보니, 코가 이상하게 뿔죽하고 양복에 짚신을 신은 사람 하나가 손에는 지팡이 같은 것을 들고 아이들의 물고기를 휘휘 휘젓고 있었습니다. “앗, 저놈은 전매국이다. 전매국.” 사타로가 말했습니다.

“마타사부로, 네가 뜯은 담배 잎을 찾아낸 거야. 널 잡으러 온 거라구.” 카스케가 말했습니다. “흥, 하나도 안 무서워.” 마타사부로는 입을 꼭 다물며 말했습니다.

“다들 마타사부로를 둘러싸, 둘러싸.”하고 이치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마타사부로를 쥐엄나무 맨 가운데 가지에 놓고는 다들 그 주위의 가지에 둘러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건들건들 이쪽으로 강변을 따라 걸어 왔습니다.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마타사부로를 잡을 생각이 별로 없는지, 모두의 앞을 지나쳐 깊은 소 바로 위쪽의 얇은 여울을 건너려 했습니다. 그것도 빨리 강을 건너는 것도 아니고 마치 더러워진 짚신이나 버선을 신은 채로 빨려는 듯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점점 무서워지기도 했지만 한편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치로가 말했습니다.

“어이, 내가 먼저 고함을 칠 테니, 다들 나를 따라서 하나 둘 셋 하면 외쳐라. 알겠지? 강을 너무 더럽히지 말라고 선생님이 언제나 말씀하시지 않는가. 하나 둘 셋.”

“강을 너무 더럽히지 말라고 선생님이 언제나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 사람은 깜짝 놀라서 이쪽을 보았지만 무슨 소린지 잘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강을 너무 더럽히지 말라고 선생님이 언제나 말씀하시지 않는가.” 매부리코는 뼈끔뼈끔 담배를 피울 때와 같은 입 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이 물을 먹나? 여기서는?”

“강을 너무 더럽히지 말라고 선생님이 언제나 말씀하시지 않는가.” 매부리코는 좀 난처하다는 듯 다시 말했습니다.

“강 속으로 걸어 다니지 말라는 거야?”

“강을 너무 더럽히지 말라고 선생님이 언제나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 사람은

당황함을 감추려는 듯이 일부러 천천히 강을 건너서 알프스라도 탐험하는 듯한 몸짓으로 파란 진흙과 붉은 자갈로 된 고개를 올라가 고개 위 담배 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마타사부로로는 “뭐야. 날 잡으러 온 게 아니잖아.”하며 남부다 먼저 풍덩하고 깊은 곳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두들 어쩐지 그 남자도 마타사부로도 가없다는, 이상하게 구멍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 되어 한 사람씩 나무에서 물로 뛰어들어 강변으로 헤엄쳐 나와서는, 물고기를 손수건에 싸거나 혹은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9월 8일]

이튿날 아침 수업 전, 모두들 운동장에서 철봉에 매달리거나 숨바꼭질을 하면서 놀고 있는데 조금 늦게 사타로가 무언가를 담은 소쿠리를 조심스레 들고 나타났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하면서 모두들 단숨에 달려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사타로는 소매로 그것을 감추듯 하며 서둘러 학교 뒤쪽 동굴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모두들 웅성웅성 뒤따라갔습니다. 이치로가 들여다보고 자신도 모르게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산초가루였는데 그것을 쓰면 발파나 마찬가지로 경찰에게 잡혀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타로는 그것을 동굴 옆 풀숲에 감추더니 시치미를 떼고 운동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소곤소곤, 시간이 될 때까지 소곤소곤, 그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도 10시쯤부터 전날처럼 더워졌습니다. 모두들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2시가 되어 5교시가 끝나자, 다들 한꺼번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타로 역시 소매자락으로 살짝 자루를 감춘 채 코스케를 비롯한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강으로 갔습니다. 마타사부로로는 카스케와 갔습니다. 모두들 마을 축제 때의 가스 비슷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자귀나무의 강 둔덕을 서둘러 빠져나가 언제나 가는 쥐엄나무 소에 이르렀습니다. 한여름 같은 멋진 뭉게구름 봉우리가 동쪽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쥐엄나무는 파랗게 빛나 보였습니다. 모두 서둘러 옷을 벗고 여울 기슭에 서자, 사타로가 이치로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 한 줄로 똑바로 줄을 서. 알겠지? 물고기가 떠오르면 헤엄쳐 가서 건져 올리는 거야. 건진 만큼 줄게. 알겠지?” 어린 아이들은 기뻐하며 얼굴이 빨개져서 서로 밀쳐 가며 등글게 여울을 둘러쌌습니다. 페키치 등 서너 명은 벌써 헤엄쳐 쥐엄나무 아래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타로는 잘난 척 하며 상류 쪽 여울에 가서 자루를 점점점점 물 속에 적셨습니다. 다들 숨을 죽이고 물을 바라보며 서있었습니다. 마타사부로로는 물을 보지 않고 건너편 구름 위를 지나가는 검은 새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치로도 강 둔치에 앉아 돌을 탁탁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록 물고기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타로는 아주 심각한 얼굴로, 턱 버티고 서서 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발파

를 했을 때 같으면 벌써 열 마리도 넘게 잡혔을 텐데 하고 모두들 생각했습니다. 다들 한참이나 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물고기가 하나도 안 뜨네.” 코스케가 외쳤습니다. 사타로는 흠칫했지만 여전히 정신없이 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하나도 안 뜨네.” 페키치가 다시 건너편 나무 아래에서 말했습니다. 모두들 마침내 시끌시끌 떠들기 시작하더니 다들 물로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사타로는 잠시 동안 멍쩍은 듯 웅크리고 물을 보고 있었지만 결국 몸을 일으키며 “술래잡기 안 할래?”라고 말했습니다. “하자, 하자.”모두들 소리치며 가위바위보를 하려고 물 속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헤엄을 치고 있던 아이들은 서둘러 발이 닿는 곳까지 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치로는 먼저, 어제 그 이상한 때부리코가 올라가던 낭떠러지 아래의 푸르고 질퍽이는 진흙이 있는 곳을 은신처로 정했습니다. 거기에 붙어 있으면 술래가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가위 내기 없기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즈지 혼자만 가위를 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으며 술래가 되었습니다. 예즈지가 입술이 새파래지도록 강 언덕을 내달려 키사쿠를 잡았기 때문에 술래는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들 모래밭 위로, 여울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잡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면서 몇 번이나 술래잡기 놀이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마타사부로 혼자 술래가 되었습니다. 마타사부로로는 금세 키치로를 잡았습니다. 모두들 쥐엄나무 아래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타사부호가 “키치로, 너는 위쪽에서부터 물고 내려오는 거야. 알겠지?”하면서 자기는 잠자코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키치로는 입을 크게 벌리고 팔을 펼치고는 상류쪽에서부터 진흙 위로 쫓아 내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여울로 뛰어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치로는 버드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때 키치로가 저 상류 쪽 진흙이 발에 묻어 있었던 탓인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와아 하고 소리치며 키치로를 뛰어넘기도 하고 물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며 상류 쪽 푸른 진흙의 은신처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마타사부로, 잡아 보시지.” 카스케는 서서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 손을 펼쳐서는 마타사부로를 놀려댔습니다. 그러자 마타사부로는 아까부터 잔뜩 화가 나 있었던 것처럼 “좋아, 두고 봐.”하더니 정말 심각한 얼굴로 풍덩 물에 뛰어들어 열심히 그 쪽을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마타사부로의 머리칼이 빨갛고 푸석푸석한데다가, 너무 오랫동안 물 속에 있어서 입술도 약간 보랏빛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모두 겁에 질렸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그 진흙이 있는 곳이 비좁아서 다 들어갈 수가 없는데다가 너무나 미끌미끌한 비탈이라 아래쪽의 네 다섯 명은 위에 있는 아이들에게 매달리듯 해서 간신히 강물에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치로 혼자만 제일 위에 버티고 서서, 자아 애들아, 어찌고 하며 작전 회의 비슷한 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머리를 맞대고 듣고 있었습니다. 마타사부로는 침병침

병 벌써 그 가까이에 갔습니다. 모두들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타사부로가 난데없이 양 손으로 아이들에게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허둥지둥 물을 피하다 보니 점점 진흙이 미끄러워져서 자기도 모르게 밀로 밀려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마타사부로도 좋아하면서 점점 더 물을 뿌려댔습니다. 그러자 모두 텀벙텀벙 단번에 미끄러져 물에 빠져 버렸습니다. 마타사부로도 그 아이들을 남김없이 모조리 잡았습니다. 이치로도 잡혔습니다. 카스케 혼자만 위쪽으로 돌아 헤엄쳐서 도망을 쳤지만, 마타사부로도 재빨리 쫓아가 카스케의 팔을 붙잡고 네 다섯 번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카스케는 물을 먹었는지 물을 뱉어내고 객객거리며 “나는 이제 안 해. 이딴 술래잡기 같은 거 안 해.”라고 했습니다. 작은 아이들은 모두 자갈밭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마타사부로 혼자서 쥐엄나무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땐 벌써 하늘 가득 시커먼 구름이 깔리고 버드나부도 이상하게 허영게 보이며, 산의 풀도 거뭇거뭇 어두워져 주위는 뭐라 할 수 없이 음산한 풍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때 갑자기 높은 들 언저리에서 우르릉 하며 천둥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산사태라도 나는 듯한 소리와 함께 단번에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바람까지 횡횡 불어댔습니다. 여울 속에는 커다란 덩어리들이 잔뜩 만들어져 물인지 돌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모두들 강 둔덕에서 옷을 들고 자귀나무 아래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마타사부로도 웬지 처음으로 무서워진 듯 쥐엄나무 아래에서 풍덩하고 물에 뛰어들어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비는 썩아썩아 아메사부로,

바람은 뽁뽁 카제사부로” 하고 외치는 이가 있었습니다. 모두 곧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비는 썩아썩아 아메사부로,

바람은 뽁뽁 카제사부로.”

그러자 마타사부로도 너무도 당황해서, 무언가 다리를 끌어당긴 것처럼 강으로부터 뛰쳐나와서는 한걸음에 모두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덜덜 떨며 “지금 외친 게 너희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모두 외쳤습니다. 폐키치가 또 혼자 나와 “아니야.”하고 말했습니다. 마타사부로도, 기분 나쁜 듯 강 쪽을 보며 새파래진 입술을 여느 때처럼 짹 다문 채 “뭐야.”라고 말했지만 몸은 여전히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9월 12일, 제12일]

「우르릉 우릉 우르르릉 우르릉

푸른 호두도 날려 버려라
 시큼한 모과도 날려 버려라
 우르릉 우릉 우르르릉 우르릉
 우르릉 우릉 우르르릉 우르릉」

전에 마타사부로에게서 들었던 그 노래를 이치로는 꿈속에서 다시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보니 밖에서는 정말로 굉장한 바람이 불고 숲은 마치 포효하듯 으르렁거리고, 새벽녘이 가까워 푸르스름한 희미한 빛이 창호지와 선반위의 초롱 그리고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이치로가 재빨리 허리띠를 묶고 신을 신고 토방으로 내려와 마구간을 지나 쪽문을 열자, 바람과 차가운 빗방울이 함께 휩 들어왔습니다.

마구간 뒤쪽에서 갑자기 문썩이 쿵하며 쓰러져서 말이 푸르릉 하고 코를 울렸습니다. 이치로는 바람이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만 같아서 하아 하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내달았습니다. 밖은 이미 환하게 밝았고 땅은 젖어 있었습니다. 집 앞의 밤나무들은 이상하게 창백해 보이고, 마치 바람과 비가 지금 빨래를 하고 있는 듯이 심하게 비틀리고 있었습니다. 푸른 잎도 몇 장이나 날려가 버리고 쥐어뜯긴 듯한 파란 밤송이들이 검은 땅 위에 잔뜩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험상궂은 회색으로 빛나며 빠른 속도로 휙휙 북쪽으로 날려가는 중이었습니다. 먼 곳의 숲은 마치 바다가 거칠게 넘실대는 것처럼 출렁출렁 울리기도 하고 싸아 하는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치로는 얼굴 가득 차가운 빗방울이 부딪혀 오고 바람이 옷을 벗겨 갈 것 같았지만, 말없이 그 소리들을 귀 기울여 듣고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가슴 속에 살랑살랑 물결이 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꼼짝 않고 서서 울리고 울부짖으며 거칠게 달려가는 바람을 보고 있자니까 이번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어제까지 언덕과 들판의 하늘 아래 맑게 개어 고요하던 바람이, 오늘 아침 해뜰 녘 느닷없이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휙휙 타스카로라 바다 북쪽 끝으로 간다는 것을 생각하니, 그저 이치로는 얼굴이 달아오르고 숨도 헉헉 가빠지고 자기도 함께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 되어 가슴을 짝 펴고 숨을 후우 내쉬었습니다.

“어이구, 굉장한 바람이네. 오늘은 담배도 밤도 다 절단이 나겠군, 그래,” 이치로의 할아버지가 쪽문 옆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치로는 서둘러 우물에서 양동이 하나 가득 물을 길어다가 부엌을 싹싹 닦았습니다. 그리고 대야를 꺼내 얼굴을 씻고는 찬장에서 찬밥과 된장을 꺼내어 정신없이 푹푹 퍼먹었습니다.

“이치로, 급방 국이 끓을 테니 조금만 기다리렴. 오늘 아침에는 무슨 일로 그리 일찍 학교에 갈 준비를 하니?” 어머니는 말에게 줄 여물을 끓이는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며 물었습니다.

“응, 마타사부호가 날려가 버렸을지도 모르니까.”

“마타사부호가 뭐니? 새니?” “응, 마타사부로라는 녀석이 있어.” 이치로는 서둘

러 밥을 먹어 치우고 그릇을 씻어 놓더니 부엌의 못에 걸어둔 우비를 입고 신발을 들고 맨발로 카스케를 데리러 갔습니다. 카스케는 이제 막 일어난 참이라 “지금 밥 먹고 갈께.”라고 했기 때문에 이치로는 잠시 마굿간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곧 카스케는 작은 도롱이를 입고 나왔습니다.

세찬 비와 바람에 흠뻑 젖어 두 사람은 겨우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으로 들어가니 교실은 아직 조용했지만 창문 틈 곳곳에서 비가 들어쳐서 바닥은 질퍽했습니다. 이치로는 잠깐 동안 교실을 둘러보고 “카스케, 둘이서 물 쓸어내자.”하더니 나무 빗자루를 들고 와 창문 아래 구멍 쪽으로 물을 쓸어 모았습니다.

그러자 벌써 누가 왔냐는 듯 안에서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이상한 것은 선생님이 일상적인 홀옷차림에 빨간 부채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척 일찍 왔네요. 둘이서 교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치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카스케도 말하더니.

“선생님, 마타사부로 오늘 오나요?”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잠깐 생각하더니

“마타사부로라는 건 타카다군 말이군요. 그런데 타카다군은 어제 아버지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일요일이여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선생님, 날려 간 거예요?” 카스케가 물었습니다. “아니오. 회사에서 보낸 전보에 불러서 간 거예요. 아버지는 다시 한번 잠깐 이곳으로 돌아오실 모양이지만 타카다군은 그냥 저쪽 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쪽에는 어머니도 계시니까.”

“뭐 때문에 회사에서 부른 거예요?” 이치로가 물었습니다.

“이쪽 폴리브덴 광맥은 당분간 손대지 않고 두기로 해서래요.”

“그게 아니야. 그 녀석은 바람의 마타사부로였다구!”

카스케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숙직실 쪽에서 뭔가 덜컹덜컹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은 빨간 부채를 들고 서둘러 그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상대방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맞추려는 듯 얼굴을 마주 보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창문의 유리창은 빗방울 때문에 흐려지면서도 여전히 덜컹덜컹 울렸습니다.